



코스피 2307.07 (+11.81)	코스닥 790.25 (+14.73)
금리 (연고채 3년) 2.12 (변동없음)	환율 (USD-달러) 1120.60 (+1.90) (1일)



[르포]
용·여 뜨니 마포 들썩
'억' 소리나게 오르는 집값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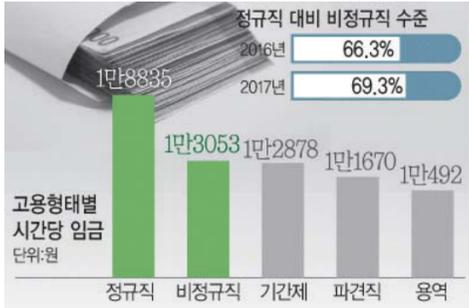
밥그릇 뺏길라... 비정규직 차별하는 정규직 노조

실패의 경제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12) 勞勞갈등

"파견계약직이라 9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막막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 강도는 세서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같은 월급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곧 삼십대라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일순위입니다." (방송국 파견 계약직 A씨)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는 1~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않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여기서 기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경력이 보잘것 없고 나이도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견기업 계약직 B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업체 규모	정규직	비정규
300인 이상	100%	65.1
300인 미만	54.3	40.3

※3만3000개 표본사업체 근로자 약 97만명
2017년 6월 급여계산기간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뉴시스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임금·복지 등 차별 이뤄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기존 정규직원 "처우 나빠져 동일대우는 역차별" 등 불만

결렸지만, 정규직의 이기주의의 표출로 연대가 무산되고 노노(勞勞)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무는 '한지붕', 임금은 '천차만별'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경력·자격·근속연수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격차가 9.4%에 달했다.

20대와 여성에 한정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41.2%)으로 남성 비정규직(26.3%)보다 14.9%포인트나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울타리에서도 한 칸으로 물러나 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은 82.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도 정규직은 약 85~99%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勞勞) 어찌
이 같은 직장 내 차별에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찬

반 논쟁을 일으키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불씨는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적 사례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체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대상자 바뀌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규직 전환 심사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동등한 평가가 없는 동일대우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

나면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지난달 10일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축소 우려가 불거진 지도 오래다.

공공기관 입사 준비생 C씨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이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노갈등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논의가 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이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전략을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민기자 silkni@metroseoul.co.kr

편의점 상비약 운명 'D-6' 약사회-편의점, 대립 심화

복지부 상비약심의회 8일 개최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회의를 앞두고,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간 '상비약' 논쟁이 정점으로 치닫하고 있다. 거리로 나온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 부작용 등을 호소하고 있는 한편, 편의점 업계와 시민 단체 등은 약사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부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약 33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집회는 내달 8일 열리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회위원회'를 겨냥해 열렸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사제와 제산제 등의 추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 증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 수호 약사결기대회'에서 조찬회 대한약사회장(왼쪽)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정책과 재벌 친화적 의약품 정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와 함께 편의점의 약사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늘리는 대신, 보건소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정부 재원을 활용한 공공 심약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편의점 협회 측에서도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

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약사회가 국민 건강 수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협회는 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해 소비자들의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현재 판매 중인 13개 품목의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협회는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의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약사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실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의약품의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의 부작용 발생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서울 기온 39.6도

역대급 폭염에 붉게 물든 광화문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일반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모습.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낮을수록 푸르게 표시된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7월 수출 519억 달러... 월간 실적 '역대 2위'

산업부, 수출입 동향 발표

최근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만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518억8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하며 월간 실적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1, 2월을 제외하고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7월 누적 수출도 역대 최고다. 수입은 488억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다.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했고, 국내 생산에 필요한 컴퓨터 기억장치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줄었다.

무역흑자는 70억1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7월 누적 일평균 수출도 22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45.2%), 철강(34.0%), 반도체(31.6%), 석유화학(24.1%), 일반기계(18.5%), 컴퓨터(10.0%), 자동차부품(7.2%), 섬유(6.6%), 무선통신기기(4.0%), 디스플레이(2.4%)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찜통더위' 특수 만난 유통업계

남성용 양산·에어프라이·간편식... 생존형 용품 불티

더위 식힐 신형 여름아이템 주목
양산, 남성고객 주문량 50% 증가
쿨스카프도 패션아이템으로 매치
간단 요리 즉석밥·삼계탕 등 인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생존형' 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일 CJ ENM에 따르면 최근 CJmall 인기 상품을 검색한 결과, 에어컨, 휴대용선풍기, 냉풍기 등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냉방용품 검색이 급증했다. 또, 양산과 에어프라이어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신형 여름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CJmall 상품 검색어 TOP 10 중 에어컨, 휴대용선풍기 등 냉방용품 관련 검색어가 7개에 달했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7월 초에 에어



자외선차단 ▶
암막양산
/CJ ENM

에어프라이어▶
/CJ ENM

컨과 쿨매트는 각각 19위, 72위에 자리했었으나, 폭염 이후 각각 검색어 2위와 11위로 크게 올랐다. 최근 여름철 필수품으로 등극한 휴대용 선풍기는 7월 초 339위였으나, 폭염이 이어지자 단숨에 3위로 급상승했다. 7월 초 각각 45위, 83위에 있던 양산과 냉풍기도 폭염이 시작된 이후 6위, 7위를 차지했다. 무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는 고객 니즈가 상품 검색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같은 기간 양산과 쿨스카프를 구매한 남성고객 주문량도 전년 대비 각각 50%,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막 컨셉트의 심플한 양산과 패션 아이템으로도 매치할 수 디자인의 쿨스카프가 늘면서 남성 고객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더운 여름 불 앞에서 요리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한 에어프라이어(1350%)와 즉석 조리식품이나 대용식

등 가정 간편식류(113%)의 주문량이 크게 늘었고, 양산(161%)이나 보냉병 같은 휴대용 물통류(84%)의 주문량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마트의 가정간편식매출(7월 1일~25일)을 살펴봐도 이같은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다. 불을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 등으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즉석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으며, 특히 컵비빔밥은 무려 57.7% 매출이 늘었다. 또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가정간편식 삼계탕 매출이 동 기간 32.9% 증가하며 전체 즉석국/탕 매출이 24.4% 늘어난 데 기여했으며, 냉면으로 대표되는 계절음식인 밀면, 쫄면 등 가정간편식 면류 매출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정간편식 전체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니,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반면, 7월 들어 25일까지 매출 신장률은 이보다 높은 8.6%를 기록했으며, 온라인몰

가정간편식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 매출 대비 3배 가량 높은 25.2%를 기록했다.

전례없는 무더위에 여성 소비자들은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기초 제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스토어 탈라블라(구 왓슨스)가 7월 1일부터~25일까지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페이셜케어'의 매출이 49% 급증한 것.

탈라블라에서 7월 들어 가장 큰 매출 신장률을 보이는 제품 군은 스킨토너류로 51.5% 매출이 늘었다. 마스크팩과 트러블패치는 48.3%, 클렌징은 47.3% 신장세를 보이는 등 페이셜케어 제품류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얼굴에 수분을 공급하는 토너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 노폐물이 쌓인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클렌징제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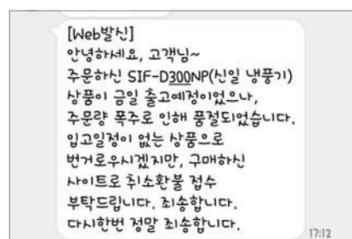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냉풍기·이동식 에어컨 등 검색 폭주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등 소형 냉방가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범한 선풍기나 대형 에어컨 대신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고 있는 소비자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더위에 추가적인 냉방 가전을 들고 있는 것. 1일 오전 네이버 쇼핑의 에어컨·냉방기 쇼핑검색어 순위에서 이동식 에어컨이 1위를 차지했다.

냉풍기는 얼음팩이나 얼음 등을 이용해 냉각된 바람을 쐬 수 있는 제품으로, 에어컨보다 시원함이 떨어지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력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계 내부에서 냉기가 발생해 일반 선풍기보다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자취생 박 씨는 "선풍기는 날이 더우면 더운 바람이 나와서 불쾌했는데 냉풍기는 선풍기의 단점을 해소해줬다"고 말했다.

이동식 에어컨은 기존에 에어컨이 있지만 전체 냉방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또 공간이 협소하거나 실외



냉풍기 주문량이 늘면서 주문이 취소된 상황.
/독자제공

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적합한 1인 가구에도 인기가 있다.

한편 위메프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절가전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써큘레이터 등 소형 냉방가전이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제품은 이동식 에어컨으로 1135% 급증했다. 이어 냉풍기 253%, 에어컨 164%, 선풍기 135%, 써큘레이터 116% 순으로 나타났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더위엔 수분 섭취... 정수기도 '물 만났네'

코웨이·SK매직 정수기 판매량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어나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수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생활가전사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웨이, SK매직 등이 7월에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정수기 판매량이 30%를 훌쩍 넘어서는 등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한 고객들 덕에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1일 관련회사에 따르면 코웨이는 7월 한 달 정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늘었다. 특히 7월 판매 모델 가운데 냉수가 제공되는 냉정수기 판매량만 전체의 60% 이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내내 지속된 폭염 경보 및 열대야의 영향으로 실내에서 시원한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정수기를 찾는 소비자들 많이 급증했다는 게 코웨이의 자체



코웨이 '시루직수 정수기'

분석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 6월 중순 출시한 '시루직수 정수기'가 인기다. 이 제품은 시장에 나온 지 한 달만에 5000대가 판매됐다.

코웨이는 풍부한 정수량을 위해 기존 CIROO필터보다 면적을 6배 늘린 'CIR OO 2.0 필터'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수량이 30배 늘어났다.

SK매직도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어 6~7월에만 정수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5% 이상 늘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SK매직은 상반기 신규렌탈 계정이 26만을 넘어서며 누적계정 143만을 달성, 렌탈업계 2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SK매직은 지난해 대비 정수기 판매량이 35% 이상 증가했다. 정수기 판매 실적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신규렌탈 계정이 26만개를 기록하며, 누적계정도 143만을 넘기며 렌탈업계 2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날씨 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도 주요했다. 지난 3월 출시한 '울인원 직수 정수기'와 '울인원 직수얼음정수기'가 효자노릇을 톡톡히하고 있는 것이다. SK매직 울인원 직수얼음정수기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정수, 냉수, 온수, 조리수는 물론 얼음까지 직수로 만들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남북협력·거점성장추진단 신설 등 '10년 혁명' 이끈다

(박원순 시장 책임기간)

서울시 민선 7기 조직개편

서울-평양, 전국체전 100주년행사 준비
돌봄사각지대 해소...담당관 신설도

서울시에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된다. 또 거점성장, 돌봄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보행과 안전 관련 조직은 강화된다.

서울시가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이끌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남북협력, 혁신성장 등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 대한민국과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돌봄문제 같이 시민



박원순 서울 시장 /연합뉴스

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기 위한 조직설계

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 (3급)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것이다. '남북협력담당관' (4급)도 국 단위로 확대했다. 추진단은 시정 전반의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첫 마중물 사업으로 서울-평양 공동주최의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국제적 대북재제가 병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대표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하위 조직으로는 기존 '남북협력담당관' 외에 '개발협력담당관'이 신설된다. '남북협력담당관'

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개발협력담당관'은 상수도 개량, 도로 등 평양의 인프라 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5개년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거점성장추진단'도 경제진흥본부 내 신설된다. '거점성장추진단' 내에는 ▲산업거점조정반(양재 혁신지구, 흥릉바이오, 마곡단지 등 R&D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거점활성화반(G밸리 및 DM C 활성화, SETEC 복합개발 등 혁신성장 활성화) ▲도시제조업거점반(도시제조업 스마트엔지니어링 조성, 패션 허브 조성 등)이 있다.

돌봄 관련 전담기구인 '돌봄담당관' (4급)이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된다. '돌봄담당관'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하루 24시간 촘촘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 내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젠더폭력 예방팀'과 '성평등노동팀'을 각각 신설해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걷는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도시교통본부의 보행정책 기능과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 기능을 통합,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조직된 '안전총괄본부'는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 하도급 혁신 등 구조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한다. 또한 상황대응에 '지진안전팀'을 신설해 지진발생시 수습·복구 총괄 기능을 전담하고, '지진안전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용·여 뜨니 마포도 ‘들썩’... ‘억’ 소리나는 강북 집값

(용산·여의도)

Q 르포 | 마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니

재개발 계획에 낙수효과 특목호가 뛰고 매물 회수후 관망도 마포구 소형아파트 10억대 진입 지난 1월 8.3억원대 아파트 10억

#. 박 모씨(36)는 서울 마포구 ‘라’아파트 매매 직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주인(매도자)이 이를 만에 매가가를 2000만원 더 올렸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망설이자 집주인은 “앞으로 마포 일대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매물을 회수해버렸다.

서울 마포일대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이 불을 지폈다.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인접 지역인 마포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하루아침에 수 천 만원씩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며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잘 나가던 마포, 더 잘 나간다
“‘라’아파트요? 매물이 아직 있는지 확인해봐요.”

지난달 31일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시로 아파트 물건을 확인했다. 최근 들어 매물이 일찍 팔리거나 회수돼 문의가 들어오면 재확인해야 한다고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천이나 부산 등 지방에서도 투자자들이 자주 문의·방문한다”며 “워낙 아파트 가격이 자주 올라서 잠깐 망설이면 매물이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엔 박원순 서울 시

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여의도·용산 일대 재개발 계획)’이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꾸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역은 서울역까지 지하화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과 쇼핑센터를 들이고 각종 광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역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남 일대와 견줄 정도로 급격히 치솟고 있다. 그러자 인접해 있는 마포구까지 기대 심리가 확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2% 떨어진 가운데, 서울은 0.23%에서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개발호재(동대문구 등), 직주근접(마포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북권에선 마포구가 0.56%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값은 5.91% 상승했다.

B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는 워낙 교통 여건이 좋아서 수요가 높고 가격도 상승세였다”며 “여기에 최근 여의도·용산 집값이 뛰면서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여의도·용산보고 집주인들 ‘뒷집’ 실제로 마포구의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대에 진입했다.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대표적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59.95㎡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8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엔 9억9500만원(18층)까지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포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올랐고, 현재는 10억 3000만원~10억 50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와 있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84㎡도 지난 1월 저층은 9억원대(9억7500만원·2층)였으나, 5월 12억8500만원(7층)으로 치솟았다. 현재는 같은 타입 층중이 13억 2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114.73㎡도 올해 1월 12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중순엔 14억원(5층)에 팔렸다.

공덕동 ‘래미안공덕 5차’ 59.95㎡도 지난 1월엔 6억8000만원(1층)~7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이어 3월 7억9000

만원(10층)~8억9500만원(13층), 6월 말 9억원(8층)에 거래됐다가 지난 주말엔 9억 4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용강동의 경우 마포역과 인접해 있는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59.98㎡ 타입이 6월에 10억원(9층)~10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1억원에 호가되고 있다. ‘래미안마포리버웰’도 59.98㎡이 올 1월 9억원(12층)에 팔렸는데, 현재는 저층도 11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말에 9억2000만원에 내렸던 매물을 월요일에 2000만원 더 올리라고 하더라”며 “최근 1000만~2000만원 올리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이마저도 회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의도, 용산의 집값 상승세를 보고 하반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2억달러 규모 세계최초 지속가능채권 발행

그린본드와 소셜본드 결합된 형태 사회적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 목적

롯데월드타워가 지난달 31일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번 지속가능채권의 만기는 3년, 발행 금리는 3개월 리보(Libor) + 92.5bp(1bp = 0.01%p)이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시장은 해외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본드 발행액은 총 1555억 달러, 소셜본드는 총 156억 달러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이 발행됐고 지속가능채권은 이번이 두 번째 발행이다. 롯데월드타워는 민간기업으로서 전 세계 초고층 빌딩 중 최초로 달러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롯데물산이 이번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가 결합된 형태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설비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기초로 하고, 소셜본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프로젝트의 실행에 근간을 둔다.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가 설정한 발행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발행원칙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 평가와 선택의 절차, 수익의 관리, 보고 등 4개 우선 요소로 구성되었다.

롯데월드타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발전 및 운영을 고려했다. 완공과 동시에 미국 그린빌딩협회(USGBC)로부터 세계 신축 초고층 빌딩으로는 처음으로 LEED GOLD 인증을 받았고, 내셔널 엔지니어링 액셀런스 어워즈 본상도 수상했다. 현재 수축열 및 지열 냉난방시스템, 태양열 집열판,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중수 및 우수 재활용, 연료전지 설치, 생활하수 폐열 회수 등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에너지 사용량 중 15%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해 롯데월드타워는 직간접적으로 약 3만 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롯데월드몰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원은 9200여명이고, 이 중 사회적 일자리는 약 900여개다.

박헌철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발전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MW Korea



BMW 코리아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BMW 코리아는 일련의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차량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EGR 모듈 교체와 EGR 파이프를 클리닝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리콜에 앞서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고객분들께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 센터 및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를 24시간 운영하여 일일 약 1만여 대의 안전 진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요청 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렌터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렌터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점검 후, 안전 진단 확인서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차량을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신 이후에도 EGR 모듈로 인한 화재가 발생 시 동급의 신차로 교환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BMW 코리아 및 BMW 공식 딜러사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전사적으로 조속히 리콜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주) 임직원 일동

대상차종 확인 및 서비스 안내

1. 리콜 대상 차량 확인

- BMW 코리아 홈페이지 리콜 대상 차량 조회 서비스
www.bmw.co.kr/ko/topics/owners/bmw-recall.html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국토부 자동차 리콜 신고 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2.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및 리콜 서비스 예약처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BMW 예약 전용 이메일(service@bmw.co.kr)
- BMW Plus 어플리케이션(리콜 예약만 가능)

포스코 최정우 취임후 첫 조직개편... 철강부문장에 장인화



오인환 사장, 인재창조원장에 전념 3인체제 유지·연말 대규모 조직개편

올 연말까지 조직 및 인사개편을 예고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후 소폭으로 첫 인사를 단행했다.

1일 포스코와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기존 철강 1·2부문을 통합해 만든 철강부문장에, 철강 2부문장을 맡고 있던 장인화 사장(작은 사진)을 기용했다.

철강 1부문장과 포스코 인재창조원장을 겸직했던 오인환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다만 대표이사직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유지한다.



장 사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입사했다. 포스코에서는 신사업실장,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기술투자부문장 등을 역임한 쉿물 전문가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으로서 그룹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철강사업부문은 1·2부문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장 사장에게 총괄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과 오 사장은 모두 최 회장이 포스코 회장직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현재 최 회장, 장 사

장, 오 사장 3명이 구축한 '3인 대표이사 체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개편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지원센터는 조직간 일체감 조성 차원에서 경영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지원본부의 홍보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 커뮤니케이션과 인사, 노무 등을 맡는 경영지원센터

는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홍보실도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까지 담당토록 했다. 대외협력팀과 사회공헌팀이 커뮤니케이션실에 통합됐다.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존 한성희 부사장이 그대로 맡는다. 커뮤니케이션실장도 기존 홍보실장인 이상춘 상무가 담당한다.

앞서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비엔지니어 출신이지만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철강업계 전문가가 됐다"며 "엔지

니어 출신들이(회장을) 많이 해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나 공정이 제철소에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경제성이나 상업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개혁과제에 포함해서 포스코를 더욱 더 실질적이고 실질을 증시하는 강건한 체제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그룹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에서 과거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분야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영입해 포스코와 다른 진취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

SK텔레콤, 대구시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SK텔레콤-대구광역시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 차세대 전력으로 자립도시 목표

SK텔레콤과 대구광역시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7월 31일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독립형 전력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1차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에너지수요관리형 ESS(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및 지열 활용 융·복합 분산전원, 종합정보센터 등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업체당 평균 20% 이상의 전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 중 LED 전문업체 '테크엔'이 전력요금 0원을 기록해 '제로 에너지 팩토리'를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진행되는 2차 구축사업은 향후 5



대구테크노파크 권업 원장(왼쪽)과 SK텔레콤 김성환 스마트시티 유닛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개월 동안 총 127억원(국비 60억, 시비 8억, 민자 59억)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40여 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7.5MWh 규모의 에너지수요관리형 ESS 및 3MW 용량의 융·복합 분산전원을 구축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산업단지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한 사례로,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전국적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분야를 공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토론토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내달부터 연구소 운영 본격화 토론토대학의 AI인프라 바탕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 박차

LG전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Toronto AI Lab)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 인공지능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연구소는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캐나다의 대학을 중심으로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어 미래기술 확보에 적합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캐나다의 풍부한 인공지능 연구 인프라와 토론토 대학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딥러닝 분야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캐나다 현지의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력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한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오른쪽)과 토론토대학교 메릭 저틀러(Meric Gertler) 총장이 공동 인공지능 연구에 합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가 서울, 실리콘밸리, 방갈로르, 모스크바 등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 조직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CTO부문 산하 소프트웨어센터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신설하고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생체인식 등의 인식 기술을 비롯해 딥러닝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다. 올해 초에는 실리콘밸리 랩 산하에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어드밴스드(Advanced) AI를 신

설해 딥러닝, 미래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메릭 저틀러 총장은 "LG전자와 토론토대학의 산학협력은 향후 인공지능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이번 협력이 원천기술 개발에도 '오픈 파트너십' 전략이 주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컴투스, 창립 20주년 기념 '희망 나눔 바자회'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자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과 함께 '희망 나눔 바자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컴투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컴투스 본사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내 바자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바자회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개인 물품 1000여점이 모여 진행됐으며, 의류, 가전제품, 도서, 인테리어 소품 등의 기증품이 모였다.

행사 당일에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됐다. 바자회 이외에도 농구, 다트, 야구 등 다채로운 참여형 기부 이벤트가 마련됐다. 또 임직원이 직접 구운 봉어빵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봉



컴투스의 '희망 나눔 바자회' 전경. /컴투스

어빵 타이쿰' 코너도 운영돼 자사의 인기 게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사내 바자회 및 게임 이벤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나눔 문화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에 전액 기부돼 국내외 소외 계층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하이닉스, 사내벤처 '하이게러지' 아이디어 공모

SK하이닉스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하이게러지(HiGarage)에 참여할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게러지는 구성원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차고(garage)에서 창업한 것에서 착안해 명명했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ICT 등 제한은 없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도 접수한다.

하이게러지는 8월부터 9월 초까지 지원자 모집을 거친다. 10월까지 사내의 전문가의 심사를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선정된 구성원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난 별도의 공간에서 벤처 사업



화를 준비하며 최대 2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성공적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외부 벤처 전문가의 컨설팅도 수시로 진행한다. 하이게러지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벤처 기업은 최종적으로 창업과 SK하이닉스 사내 사업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창업에 나설 경우에는 창업 장려금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폐업시 재입사를 보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 사내 사업화를 선택하는 경우 SK하이닉스 사업에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회사 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사내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해당 구성원에게도 일정 부분 배분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교육 담당 김대영 상무는 "하이게러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수입차 피해보상 극과 극... BMW '적극' vs 벤츠 '소극'

BMW, 리콜 서비스 24시간 확대
사전 안전점검진단 등 대책 마련

벤츠, 불량차량 교환 요구 거절
리콜 '능장대응' 등 나몰라라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05km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원주소방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들이 업체들이 고속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차량 결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수입차 신차등록대수(14만109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152대) 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기간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의 판매량은 각각 4만1069대, 3만4568대, 5269대, 5011대로 독일브랜드가 수입차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차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결함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차량에 발생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차량 화재와 관련해 '능장대응'으로 소비자에게 비판을 받은 BMW는 차량 결함을 확인한 뒤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BMW는 지난달 27일 리콜 대상 BMW 디젤 모델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연식의 차종으로 확대해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42개 차종 10만여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 조치로 리콜 전담 고객센터 및 전국 서비스센터의 운영시간을 주말 포함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BMW는 리콜차량의 사전 안전점검 진단

을 받고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정식 리콜이 진행되는 8월 20일 이전에 EGR모듈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신차를 제공하는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다만 BMW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는 추세다. BMW 차주는 "리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BMW 차주 4명

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사후관리 등에서 소홀한 모습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달리던 차량에서 잇따라 차량 화재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지만 당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립과 학수사원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벤츠가 일반 소비자인 차주에 적절한 보상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불량이 발견된 신차를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약관상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벤츠는 지난해 퓨즈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전 세계에 판매한 2015~2017년식 C 클래스, E 클래스, CLA 세단 등 100만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5개월 뒤인 8월 31일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정비 후 차량 점검 중이던 벤츠 SUV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 사태'에 대한 능장 대응으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바 있다. 급기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정지 조치를 받아 2년여 동안 판매를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 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아우디코리아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AS 디지털 라운지 서비스'와 모바일 견적 솔루션인 '퀵터 모바일'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독일 3사를 비롯한 수입차 판매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량 증대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서비스센터 등 AS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화재나 결함으로 인한 리콜 등이 발생할 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서 적극적인 보상과 재발방지 계획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출로 '희비'... 기아·쌍용 '웃고' 현대·르노·지엠 '울고'

국내 완성차 7월 실적
기아차 '신형 K9' 등에 판매 5.1% ↑
현대차 파업 여파 등으로 수출 차질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신차와 해외 판매량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은 판매량 감소로 우울한 성적을 받아들였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 반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아차는 7월 국내 4만

7000대, 해외 18만3878대 등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총 23만878대를 판매했다.

이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신형 K9 등 신모델 판매 호조와 더불어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영향이 컸다.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쌍용차는 같은기간 내수 9823대, 수출 3093대(CKD 포함)를 포함 총 1만2916대

를 판매했다. 이는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했다. 렉스턴 스포츠와 G4 렉스턴 물량 증대에 힘입어 올해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시장에서의 호평이 이어지며 주간연속 2교대로 공급물량을 늘렸다. 이에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4000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역대 월 최대실적을 또 다시 갱신하며 내수 성장세를 주도했다.

반면 현대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국내 판매가 소폭 증가한 반면, 파업 여파로 인한 생산 물량 차질 등으로 인해 해외 판매가 부진했다. 현대차는 7월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33만969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국내

판매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개소세 인하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3% 증가한 6만367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는 7602대, 수출은 1만963대로 총 1만856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한 수치다. 르노삼성은 '신차효과'의 부재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분위기다.

한국지엠은 국내의 시장에서 3만7046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수치다.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9000대, 수출은 8.4% 감소한 2만8046대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7월 차량 판매가 비수기와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고객 신뢰 회복 추세와 주력모델 판매가격 인하로 하락폭을 크게 줄이며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양성운 기자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U+ Family 하나카드'와 단독 제휴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U+ Family 하나카드' 통신비 월 3만원 할인

LG유플러스는 'U+ Family 하나카드'와 단독 제휴를 통해 업계 최대 월 3만원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한다.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들은 이날부터 'U+ Family 하나카드'를 발급 받아 통신비를 자동이체 하면 매월 최대 2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최대 할인 한도는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다르다. 통신비를 제외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1만7000원, 70만원 이상이면 2만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말까지는 프로모션을 통해 월 할인 한도가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적용된다.

LG유플러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은 "이번에 선보인 하나카드 단독 제휴·출시로 업계 최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과 차별화된 제휴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 Family 하나카드' 제휴 서비스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25% 제휴할인은 본인·가족의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및 단말기 비용, IPTV와 인터넷 요금에도 적용 가능하다. 휴대폰을 장기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신청 ARS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스카이라이프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ARS' 운영

KT스카이라이프는 '보는 ARS'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보는 ARS'는 고객센터 음성안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서비스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음성 ARS는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안내를 들어야 했지만 '보는 ARS'는 이러한 고객 불편을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고객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청구·미납 요금 조회 ▲고장·이전 문의 ▲청구서제발행 ▲이용정지 신청·해제 ▲신용카드 즉납 ▲납부내역 수신 ▲납부계좌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T멤버십'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싸게 사고 기부도 하고

SKT 'T데이' 맞아 착한소비 제안

SK텔레콤이 8월 'T멤버십'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고객들에게 착한 소비를 제안한다.

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T멤버십은 지난 4월 멤버십 연간 할인한도를 없애고, 매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TDay'를 도입해 7월 이용자 수 250만명을 돌파했다. T Day는 매달 달력에 T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날짜에 T멤버십 전 고객에게 깜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T Day는 단순한 할인혜택을 넘어 고객들에게 착한 소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T멤버십 내 T Day이벤트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인 천연비누 '엘레멘트' 7종과 '동구밭'



사회적기업 '엘레멘트'의 이사인 알베르토가 8월 T멤버십을 통해 판매 될 '엘레멘트' 비누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3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SK텔레콤과 제휴 업체들은 고객들이 비누를 구매하면 같은 숫자의 비누를 보육원 등 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다. 고객들이 100개의 비누를 사면, 100개를 기부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ONE

FORONE'으로 유명한 '탐스(TOMS)' 슈즈와 같은 매칭 기부 방식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고객에게 소개한다.

'엘레멘트'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동구밭'에서 생산한 비누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배송하는 사회적 기업인 '두손컴퍼니'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한다. 엘레멘트는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방송인 '알베르토' 씨가 이사로 활동 중인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8월 T Day에는 T멤버십에 한정판으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트 '무슈샤'와 '엘레멘트'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한 친환경 비누를 선보인다. 한정판 '무슈샤' 비누도 T멤버십으로 구매 시 예술 활동을 하는 취약 아동청소년과 신진예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부된다. /김나인 기자

‘수수료 인하’ 전방위 압박에도 여신협 ‘나몰라라’... 카드사 불만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수익성 악화 “협회, 무엇 하고있는지 의문” 불만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논의가 시작됐지만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할 협회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 등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의무수납제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은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불만이다. 그마저도 기댈 곳은 협회뿐이지만 협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가계대출 총량규제, 법정최고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각각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적용 수수료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협회

율도 각각 1.3%에서 0.8%, 2%에서 1.3%로 낮췄다.

가계대출 총량 최고금리는 지난 2월부터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운용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회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2분기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나 감소했고, 하나카드도 31.2% 줄었다. 국민·우리카드도 순이익이 9% 가량 늘었는데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금 등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결제수수료가 0원인 ‘서울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무수납제 폐지까지 현실화되면서 카드사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여신협회가 각종 규제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카드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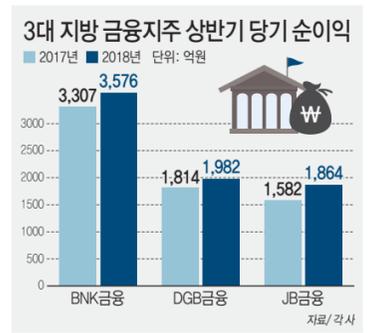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 당장 하반기 실적이 걱정되지만 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과 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카드사에 없는 살림을 빼앗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김덕수 회장과 회동은 있었지만 협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해 답답할 따름이다”며 “협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의무수납제 폐지, 서울페이 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지방 금융지주, 악재 뚫고 ‘호실적’

3대 지방금융지주 평균 11% 성장
이자이익 증가·건전성 개선 등 견인



지역경제 악화, 부당금리 논란 등 일단 악재에도 올해 상반기에 지방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 금융지주가 작년 대비 평균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약 11%를 웃도는 성적을 내었다. 특히 이자 이익의 고른 증가와 비효율성 관리, 자산건전성 개선이 실적 상승세 견인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57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9% 늘어난 1조1689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26.2% 증가한 1103억원으로 핵심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2482억원, 108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DGB금융그룹도 2분기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보이며, 상반기 그룹 연결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한 1982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시장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6904억원을 시현했으며 지속적인 자산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총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6% 감소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NIM과 대출 성장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IM은 전분기 대비 2bp 하락했고, 2분기 대출 성장률도 0%에 가까웠다.

JB금융지주는 2013년 지주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반기 실적을 일궈냈다. JB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1864억원의 상반기 연결 누적 순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활약이 돋보였다. 전북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한 상반기 562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광주은행은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디지털 코어뱅크로... ‘셀프뱅킹’ 도입 속도”

기업은행 창립 57주년

주40시간 등 업무방식 변화해야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 선도도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디지털 코어(CORE)뱅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 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창립 57주년 기념사를 통해 “과거의 태도와 방식에 의존하는 ‘경로의 존성’에서 벗어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디지털 코어(CORE)뱅크로 전환해 시스템 변화와 기술 도입을 넘어 전례 없는 변화와 깊이를 각오한 ‘완전한 변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코어에서 ‘코어’는 CO(Together·함께)·RE(Do again·다시 한다)는 기업은행장이 만든 합성어다.

이날 김 행장은 코어뱅크 전환과 함께 ▲주40시간 근무제 정착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 ▲혁신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 금융’ 실현 등을 강조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5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했다.

김 행장은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고객별 디지털 경로를 세심히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한 점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때”라며 “스마트뱅킹과 온라인 브랜치, 고객 스스로 창구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셀프뱅킹’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디지털코어 뱅크에 다가서

기 위해 은행원들의 업무방식의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나서 하는 회의를 화상 회의로 바꾸고, 오랫동안 손에 익은 서류철과 수첩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행장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다가오는 만큼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남북 경협(경제협력)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51%가 기업은행의 주거래 기업이다. 북한에 새로운 새벽을 열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 금융소비자 보호, 현장중심 경영 강화 등을 강조하고, 민간과 정부 등과 새롭게 구축하는 일자리 허브 플랫폼인 ‘아이원 잡’을 통해 2020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전달했다. /유재희 기자

금융꿀팁 200선

가정주부 A씨는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에 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 쯤 지나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나 이체한 돈은 모두 인출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하면 좋은 무료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는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 등이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를 할때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취소가 가능하다. 이체의 실행을 지연하면서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님, 거래처 등을 사전등록하거나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을 이체한다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활용하면

- 1 지연이체서비스
-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3 단말기 지정서비스
- 4 해외IP차단서비스
-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하지 않은 PC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IP차단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이 사실을 등록하면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된다. /사유리 기자 yul115@

신한카드 ‘겨울왕국 특별전’ 입장권 단독할인

신한카드가 한여름 무더위를 달래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1’ 이벤트와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Hello! FROZEN)’ 입장권 단독 할인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1 이벤트는 부산지역 신한카드 고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8월 25일 부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릴 예정인 이 뮤지컬은 신한카드로 예매시 티켓을 한 장 더

증정한다.

이어 이달말까지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의 입장권 구매시 15% 할인도 제공한다.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은 경기도 일산 ‘안녕! 겨울왕국’ 특설돔에서 11월 18일까지 열리는 전시 행사다. 겨울왕국 영화 속 모든 캐릭터를 실제 크기로 전시하고 영화배경들을 재현해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인, 친구, 그리



고 자녀들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달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별해 신한카드 고객을 위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우리은행

유학생 송금 우대환율 적용

우리은행은 다음달 14일까지 해외유학과 국외연수 관련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일석이조 유학생 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에서 유학 및 연수 관련 송금을 보내는 경우 주

요 통화(USD, JPY, EUR)는 80%, 기타 통화는 50% 우대 환율을 적용받는다. 전신료(8000원)는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을 해외체재비를 송금하는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송금하는 고객의 경우 LG코드제로 청소기(1명)와 다이슨선풍기(2명),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5명)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사유리 기자



왜 고민하세요
 KT에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이 있는데

데이터 ON 특/비디오 속도제어

데이터 ON 요금제



PEOPLE. TECHNOLOGY.



프리미엄 요금제는 테더링/파일공유형 P2P 별도 제공량(50GB) 내
 데이터 투게더, 데이터 셰어링은 각각 50GB 별도 제공량 내에서 이용 가능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국투자증권

‘인천지역 주식투자 설명회’

한국투자증권은 3일 오후 4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인천지역 주식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전문위원과 김성훈 온스탁 증권방송 전문가가 나와 ‘최근 주식시장과 유망종목’ 및 ‘주식투자 매매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강의 후 투자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이번 인천 지역 주식투자 설명회를 통해 2018년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유용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 결제 고객 이벤트

유안타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카카오페이에 유안타증권 계좌와 체크카드를 등록해 카카오머니를 충전하거나 카카오페이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유안타증권 X 카카오페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카카오페이에 유안타증권 계좌로 카카오머니를 1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 또는 유안타증권 체크카드로 카카오페이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총 2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 /손임지 기자



키움증권

연 10%대 DLS·ELS 판매

키움증권은 세전 연 10.5%의 수익을 추구하는 스탠다운형 기타파생결합증권(DLS)과 조기상환기준 세전 연 17%의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부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다.

‘키움증권 제73회 DLS’는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 서부텍사스유(WTI)선물가격, 브렌트유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낙인(Knock-In Barrier) 55% 스탠다운형 구조로, 기초자산이 최초가격대비 45%를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으면 세전 연 10.5%의 수익을 제공한다. /손임지 기자

다시 들쭉이는 ‘남북경협주’

철도·개성공단 기대감에 현대 등 랠리 재시동

현대제철·현대건설 등 일제히 올라 광복절·UN총회 경협 화두 가능성 ‘국내기업 성장 모멘텀 작용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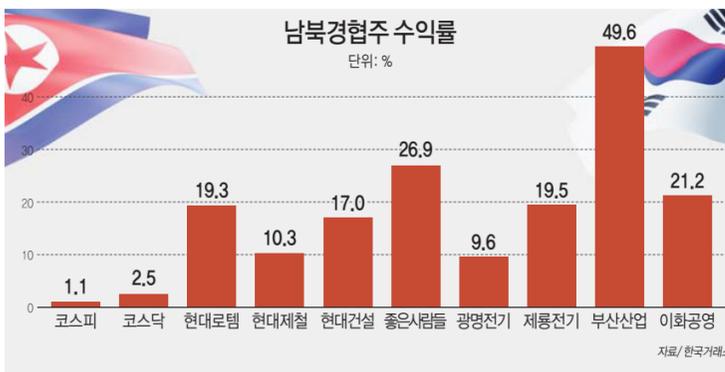
남북경협주가 다시 오름세다. 상승 부담감에 조정장을 거친 경협주가 최근 철도와 개성공단 사업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종전선언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이벤트가 남은만큼 경협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도 투자의 기회를 찾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시 시작된 남북경협 랠리

1일 주식시장에서 현대제철은 전일 대비 1.49% 오른 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다시 커진 영향이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0.17%), 현대로템(1.47%)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연 초 이후 남북경협주는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단기 급등세로 시장의 우려를 낳았다. 실제 개성공단 수혜주로 꼽힌 좋은사람들, 광명전기 등은 연 초 이후 5월까지 각각 265.1%, 73.4% 올랐다가 남북관계회복 기대감이 꺾이자 7월 23일까지 53.02%, 41.87%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남북간 철도 공동점 검이 본격화되고 27일부터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시작되면서 남북경협주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달 24일부터 31일까지 부산산업(49.6%), 좋은사람들(26.9%), 이화공영(21.2%), 제룡전기(19.5%) 등이 크게 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남북 경협주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고, 올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다.

또 8.15 광복절과 9월 UN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남북경협력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부터는 남북경협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서 남한내에서 수행하는 신도시 등 조성사업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UN안보리 제재 일시중단만 확보하더라도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경협주들이 4월 중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최근까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면 그 빠진 수준이 올 봄 급등세를 보이기 전 수준까진 아니지만 그 비슷한 정도까지 빠졌다”며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지금이야 투자 적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리서치센터 내 북한 전담팀을 만드는 등 북한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부터 리서치센터 내 ‘한반도 신경제팀’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달 리서치센터 내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을 중심으로 ‘북한 투자전략팀’을 만들었다.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북한 투자는 길고 큰 눈으로 봐야한다”며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달 24일 ‘통일경제 전담팀’을 신설했다. 북한 이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포착해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분기마다 ‘프로젝트 코리아(PROJECT KOREA)’라는 주간지와 관련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들의 통일펀드 출시도 잇따랐다. 현재 삼성자산운용, BNK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NH-아모디자산운용 등이 관련 펀드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6월 11일 통일펀드 출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국내 증시에도 열릴지 모른다”며 “통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 긴 호흡을 바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지완 BNK금융투자 회장이 가입하면서 회사의 대표펀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손임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중견권, KB증권과 중견기업 성장 협약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KB증권과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양측은 ‘기업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 인수합병(M&A)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 핵심 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왼쪽 두번째부터)중견권 이충원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김규태 전무, KB증권 김성현 IB총괄부사장, 심재승 SME 금융본부장, 조용환 ADVISORY본부 상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KB증권과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양측은 ‘기업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 인수합병(M&A)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 핵심 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왼쪽 두번째부터)중견권 이충원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김규태 전무, KB증권 김성현 IB총괄부사장, 심재승 SME 금융본부장, 조용환 ADVISORY본부 상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SK이노베이션

주당 1600원 중간배당 의결 주주중시 경영 지속적 강화

SK이노베이션이 2년 연속 중간 배당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주당 16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총 배당규모는 1437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에도 재무 성과를 만들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중시 경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시장 및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주주중시경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래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최초 시행하며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해부터 중간배당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 지난 5월부터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왔다.

차진석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 부사장은 “답체인지 2.0 기반 선제적 사업구조 혁신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결과 주주중시경영 강화를 위해 2년 연속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며 “답체인지 2.0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회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주주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배당금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지정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ujim6326@

하반기 오피스텔 1만1669실 분양... 전년비 3만실 ↓

시장 양극화로 선별적 투자 필요

올 하반기 전국에서 오피스텔 1만 1669실이 신규 분양된다. 지난해 하반기 4만2646실보다 3만여실이나 줄어든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603실, 서울 2075실, 인천 894실이다. 이밖에 부산(939실), 울산(640실), 대구(354실) 등 대도시 위주로 분양이 이뤄진다.

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15%로 지난해 5.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07년 상반기(6.92%) 조사 이래 11년 연속 하락세다. 서울은 4.82%, 경기도는 5.09%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락세이기

는 하나 여전히 시중 예금 금리(2%대)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오피스텔 청약 양극화가 뚜렷하고 공급량도 줄어 선별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시장이 양극화되고 침체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피스텔도 양극화가 뚜렷해 ‘잘 되는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풀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분양물량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은 8월 중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옆에 짓는 ‘평택 고덕아이파크’ 21~37㎡, 1200실을 공급한다. 289만㎡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東門)과 인접한 직주근접 오피스텔이다.

SRT지제역과도 가깝고 지하 2층~지상 3층, 5개층 규모의 상업시설에는 사우나, 대형마트, 패션 아울렛, 카페, 편의점, 약국 등이 들어선다. 6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CGV)도 입점한다.

현대건설도 이달 중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블록에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퀘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2블록 1381실 ▲3블록 1132실 등 2513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18~29㎡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은 '매파' 기운 솔솔... 이달 기준금리 인상 '만지작'

(통화긴축)

금통위원 7명 중 4명 '금리인상' 총재 등 절반 이상 '매파적 입장' "통화정책 완화 기조 축소할 시기"

한국은행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명의 금통위원 중 총재를 포함해 4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보였고 1명은 중립, 2명은 신중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절반 이상의 금통위원이 매파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전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3차 금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정기회의(7월 1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통위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소수의견이다.

이 위원 외에도 "늦지 않은 시기에 기준

금리를 인상해 완화 정도를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악명의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승범 금통위원도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원들의 매파 발언을 놓고 빠르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8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정기회의는 2차례(10월, 11월) 남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배경은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꼽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7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2.8~2.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2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관리물가상승률(-0.8%)을 제외하면 약 2.2%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실한 경제 성장

세가 이어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근접한다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월 "경제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금리 인상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상반된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최근 금통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는 다수의 금통위원과 매파적 성향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은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 "아직 목표 수준을 밀도는 물가와 약화된 경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분쟁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oeul.co.kr

정부 부동산 규제에 전국 집값 3개월째 내리막

서울 아파트값 평균 7억... 양극화 심화

서울 주택가격 5.7억·지방은 1.9억 지방 아파트값 서울의 3분의1 수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전국 집값이 3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러나 서울은 아파트 평균가가 7억원에 달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모양새다. 반면 지방은 집값이 떨어져 한파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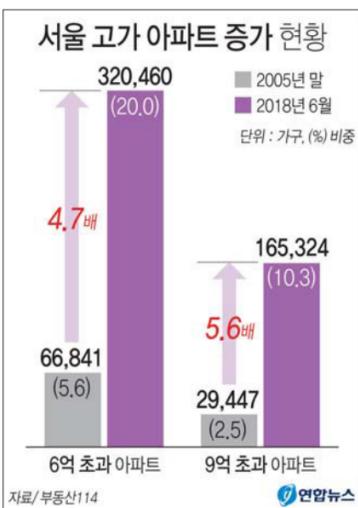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02% 하락, 지난달과 같은 내림폭을 보였다.

전국 집값은 지난 5월 0.03% 떨어져 5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내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신규 공급물량 증가, 금리 상승,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0.23%에서 0.3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7월 초 밝힌 여의도 개발 구상의 직접 수혜가 예상된 영등포구가 0.85%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구는 0.20%, 송파구는 0.08% 하락했다.

강북은 개발호재, 직주근접, 저평가 지역 등에서 강남지역과 겹 매우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0.56%), 중구(0.55%), 동대문구(0.52%), 용산구(0.50%)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

난달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5억7387만원, 아파트는 6억959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열린 셈이다. 전국의 주택 가격 평균가는 2억8338만원, 아파트 평균가는 3억2014만원이다.

반면, 지방에선 한파가 불고 있다.

지방의 주택매매가격은 -0.12%에서 -0.13%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울산·경남이 경기침체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강원·충북·충남은 신규공급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1억8777만원, 아파트 가격은 2억32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 평균의 1/3 수준이다. 7월 전국 전셋 값은 0.21%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그러나 수도권(-0.25%→-0.18%)과 지방(-0.25%→-0.24%)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0.06% 오르며 녀 달간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초구의 재건축이 주수요와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지난 달 서울 전셋값이 다시 올랐다"고 설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숨은 보험금' 2조1426억 주인 찾았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8개월 성과

지난해 12월 문을 연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 2조1426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을 조회한 뒤 온라인으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보험 찾아줌'은 지난해 12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여간 474만명이 이용했다.

이들은 187만 건, 2조1426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1건당 평균 115만원 수준이다. 생명보험사가 약 1조9674억원(171만 건), 손해보험사가 1752억원(16만 건)이었다.

중도보험금이 1조2947억원(142만3000건), 만기보험금 5501억원(12만3000건), 사망보험금 1189억원(1만1000건), 휴면보험금 1789억원(31만4000건)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약 7조4000억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11월까지 개별적으로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정성 테스트



트를 한 뒤 12월 '내보험 찾아줌'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나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에게 연락하는 등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국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회사가 온라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뒤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는 링크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보험금 청구를 하기가 힘들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서는 '콜 백' 서비스가 도입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 등이 일정 기간 이내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北에 머물던 미군 유해 55구 미국행

한국전쟁 당시 사망해 그동안 북한땅에 머물렀던 미군 유해 55구가 한국을 거쳐 1일 고향인 미국으로 떠났다.

AP통신 등은 앞서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면서 인식표(군번줄) 1개를 함께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기지 내 격납고에서 이날 열린 유해 송환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한미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환식이 끝난 후 금속관에 담긴 미군 유해 55구는 미군 대형 수송기 C-17에 실려 하와이 히카姆 공군기지로 떠났다. 히카姆 기지에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군 유해를 직접 맞이한다.

히카ُم기지 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미군 유해송환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중 북쪽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유해는 1일 송환식을 거쳐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연합뉴스

주금공, 주택연금 화상상담서비스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공단·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해 '주택연금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나 노인복지관(부산장산·동두천시·양평군·분당·군산시·부천오정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PC를 이용, 주금공 전문상담원에게 화상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전화 상담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채형석의 애경 '홍대시대' 개막... 뷰티·여행으로 대도약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40여년 만에 신사옥 본사 이전
"젊고 트렌디한 공간서 도약"
저가매물 항공사 인수도 검토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애경그룹

애경그룹이 이달 홍대 인근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홍대시대'를 맞는다. 화학을 제외한 AK홀딩스와 애경산업 등 계열사를 한지붕 아래로 불러들이는 이번 사옥 이전은 1976년 구로에 둥지를 튼 이후 40여년 만이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이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업무 시설로 입주한다.

현재 건축 중인 그룹 통합 사옥은 연면적 5만3909㎡으로, 복합시설동과 공공업무시설동 등으로 구성됐다.

신사옥에는 AK홀딩스와 애경산업, A

K캡텍과 AM플러스자산개발, 에이케이아이에스(AKIS) 등 그룹의 핵심 6개사가 총집결한다. 이외에 오는 9월에는 제주항공 공에서 운영하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 호텔이 사옥 옆에 294실 규모로 들어선다.

애경그룹이 홍대입구역사에 신본사를 세운 것은 여행과 쇼핑, 생활 뷰티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홍대입구역에 건설 중인 애경그룹 복합역사 조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서다. 제주항공을 타고 온 관광객이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입구역에 내려 호텔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 같은 사례는 일본 등 해외에서는 많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됐다.

애경그룹의 본사 이전은 '홍대시대'의 시작이자, '채형석 시대' 개막의 초읽기로도 읽힌다.

애경그룹의 최고경영자이자 본사 이전 전략을 직접 세운 채형석 총괄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 임원 워크숍에서 "올해 새로운 '홍대 시대'를 열어 젊고 트렌디한 공간에서 대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화장품과 항공은 애경그룹 대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올해 3월 증시에 상당한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 비중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6289억 원, 영업이익 4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 비중을 43%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연간 매출은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새 브랜드 출시와 중국, 일본 시장 공략을 통해 화장품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항공 사업도 확장세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매출은 1조2000억 원, 영업 이익은 12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애경그룹은 시장에 저가매물이 나오면 항공사 인수를 검토해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최근 저가항공사가 계속 늘고 있어 시장에 항공사 매물이 나오면 가격을 따져보고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경그룹의 AK캡텍과 애경화학 등 화학 계열사의 증시 상승은 내년 이후 실적 추이를 보고 추진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ooul.co.kr

GS25 ATM, 주요은행과 손잡고 고객 '2배'

주요 은행과 손잡은 GS25의 금융자동화기기(ATM) 이용 고객이 2배 증가했다.

GS25는 1일 올해 상반기 ATM(CD)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이용 횟수가 107.8%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영업시간 내) 102.6%,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101.2%, 밤 12시부터 새벽 9시까지는 118.4%로, 심야시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GS25의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GS25가 지난해 말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손잡고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편의점에 설치된 ATM(CD)에서 출금을 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13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됐지만, GS25가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손잡고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애플, 작년보다 순익 40%·매출 17% 상승

아이폰X 999달러 고가판매 전략 등

애플이 올해 2·4분기 매출 533억 달러(약 59조6000억원), 순익 115억 달러(약 12조86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7월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주당 순이익(EPS)은 2.34달러를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의 1.67달러와 비교해 무려 40.1%나 상승했다. 미국 월가와 매체의 예상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 454억 달러보다는 17.4% 늘어났다.

이런 애플의 우수한 실적은 지난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실적 부진과 사용자 수 감소 발표로 주가가 20% 정도 폭락한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애플은 2분기에 413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실적을 이끈 요인은 고가폰 판매 전략이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이폰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늘릴 수 있었다. 아이폰 평균판매가는 724달러로 집계됐는데 기본 모델

이 999달러인 아이폰 X 등 신제품 판매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품별로 전년 동기 실적을 비교하면 최근 애플의 판매전략을 알 수 있다. 아이폰은 판매대수가 거의 비슷한데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고가 전략이 힘입어 전체 이익률을 선도하고 있다. 아이패드 판매대수가 약간 늘었지만 매출액은 47억달러로 전년 동기 49억달러보다 약간 줄었다. 시장상황이 안좋아지는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는 고가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제품인 맥은 판매대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매출액 53억달러로 전년 동기 55억달러에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이폰과 비슷한 고가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판매대수 자체는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 서비스 부문 매출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72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 서비스 부문은 ▲앱스토어 ▲애플페이 ▲아이튠즈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다. 이 서비스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롯데면세점-로레알, 시내 면세점 강화 포석

면세점·화장품업계 세계 최정상 '맞손'

입생로랑 최초 국내 유통업체 협업
인천공항 화장품·향수매장 철수 보완

롯데면세점이 시내 면세점 강화를 위해 글로벌 1위 화장품 업체 '로레알 그룹'과 손잡고 대규모 고객 초청 행사를 연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최대 규모 VIP 라운지인 롯데면세점 '스타라운지'에서 오는 3일까지 '입생로랑 뷰티 호텔'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초청된 외국인 고객만 2000여 명이 넘는다.

이번 행사는 입생로랑이 최초로 국내 유통업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다.

롯데면세점은 입생로랑이 구매력 높은 아시아권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행사의 단독 유치를 추진했다.

에밀리 콜맨 로레알 아시아-태평양 지부 입생로랑 총괄 임원은 "면세점 세계 2위, 국내 1위인 롯데면세점의 시장 영향력과 아시아권 VIP 고객군을 높이 판단하고 협업하기로 했다"며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롯데면세점 고객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행사의 단독 개최를 통해 로레알 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



롯데면세점이 스타라운지에서 뷰티 클래스 메이크업 시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선옥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에밀리 콜맨 로레알 아시아-태평양 지부 입생로랑 총괄 임원(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롯데면세점

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내점에서 더욱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인천공항점 화장품·향수 매장 철수 여파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7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 구역(향수·화장품), DF5 구역(패션잡화), DF8 구역(전 품목)의 영업을 종료했다. 이에 기존에 인천공항 매장을 애용했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더욱더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콜라보 행사가 열리는 스타라운지는 롯데면세점이 총 100억 원과 약 5개월여의 공사 기간을 들여 지난 4월 명동

본점에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VIP 라운지다. 롯데면세점은 스타라운지 내에서 1:1 상품 상담 공간 '퍼스널 쇼퍼룸', 국내 단 두 곳뿐인 '길리안 조콜릿 카페',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팅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 평균 1000여 명의 VIP 고객이 방문한다.

장선옥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입생로랑 이벤트의 국내 단독 유치를 통해 로레알과 한층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추후 더 많은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롯데면세점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 I&C '초록마을'에 CRM 시스템 구축

(고객관계관리)

신세계I&C(이하 신세계아이앤씨)는 유기농 식품기업 '초록마을'의 고객관계관리(CRM)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록마을은 유기농 식품 유통 기업으로 전국 47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친환경 전문 식품 브랜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기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산돼 관리하던 초록마을 고객 정보를 통합하고, 고객 별 데이터를 분

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교화된 CRM 시스템을 통해 구매 주기, 구매 단가, 자주 사는 상품 등 고객 별 구매정보, 상담이력 등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기획할 수 있다.온/오프라인 상담 채널도 통합해 고객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매장 별 상품 품질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석탄화력 비중 30%로 줄이면 초미세먼지 30% 감소”

(2017년 43%→2022년)

(2022년)

현대경제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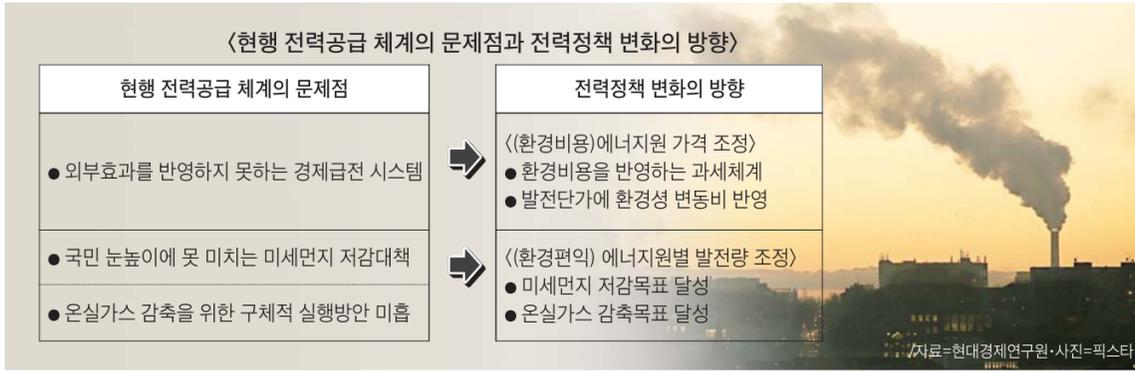
환경비용·편익 반영 시뮬레이션

세계 개편에 환경비용 반영하고 시장원리 따른 에너지전환 유도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게되면 미세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까지 줄여야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세계 개편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전력 공급 체계는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가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온실가스 등 추가적인 외부 비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화력발

전 유류설비는 피크시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cold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국내의 3억 15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장기적인 감축 목표만 제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에너지전환 선언 이후 석탄화

력발전 비중은 증가했다. 2017년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0%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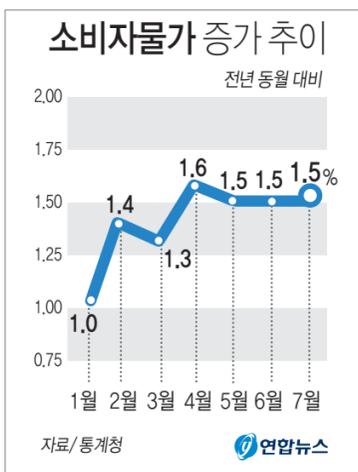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이 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17년 43.0%에서 2022년 30.1%로 축소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

이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는 지난해 대비 초미세먼지 30.2%, 온실가스는 15.4%가 각각 줄어들 수 있다. 단 한전 정산금, 가구당 월 부담액 등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다. 한전 정산금은 44조 7000만원에서 46조 8000만원으로 늘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 2100원에서 3만 3595원으로 1495원이 증가하게 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7월 소비자물가 1.5% ↑… 10개월째 1%대

경유값 14.6%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콘도 15.6% 증가 등 여행 물가 올라



최근 폭염에 따른 채소류값 인상과 유가상승에도 소비자물가는 10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1%에서 10월 1.8%로 낮아진 후 줄곧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54%p 끌어올렸다.

경유 가격은 14.6%, 휘발유 가격은 11.8% 올랐다. 경유는 작년 3월(18.2%)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일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은 l 당 1614.05원이고 최저가는 1518원, 최고가는 2298원이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2.2% 오르면서 전

체 물가를 0.72%p 높였다.

무엇보다 폭염에 휴가철이 겹치며 농축산물과 여행 관련 물가가 전월에 비례해 눈에 띄게 올랐다. 채소류 물가는 6월보다 3.7%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2월 16.7% 이후 3~6월에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달 반등했다.

휴가철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며 콘도 이용료(15.6%), 호텔숙박료(8.8%), 해외 단체여행비(7.5%) 등도 전월에 비해 올랐다.

세종=최신용 기자

폭염에 농산물값 급등…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가 6.5% 올라
생육 모니터링 강화하고 할인 판매
배추 日 100~200t 집중적으로 방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2주가 넘게 지속되면서 고온에 취약한 배추와 무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정부가 가격 안정화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데 이어 1일에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폭염 장기화에 따라 급등세는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가격은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평년보다 6.5% 높게 형성돼 있다.

배추(포기당·이하 도매 기준)는 지난달 상순 1630원에서 중순 2650원까지 뛰더니 하순에 급기야 350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평년보다 무려 50%나 높은 가격이다.

무(개당) 역시 지난달 상순 1128원에서 중순 1447원을 거쳐 하순에 2000원 선을 넘어 2026원까지 뛰어올랐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66%나 비싼 수치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주산지인 강원 태백·정선·강릉지역을 보면 지난달 중·하순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류 물가가 전월대비 3.7% 상승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채소류 매대. /연합뉴스

평균 최고기온인 32.5도를 기록해 평년 28도를 크게 웃돌았다. 강수량은 평년 117mm의 12%에 불과한 15mm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브리핑을 통해 폭염으로 배추·무 가격이 올라 비축물량을 하루 100~150t씩 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열흘도 안 돼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재차 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무·배추는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

하, 할인 판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배추는 비축 물량을 하루 100~200t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출하 조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대체품이라 할 수 있는 얼갈이배추와 열무도 상승세를 보인다. 다만, 생육 기간이 짧아 지난달 하순부터는 평년보다는 낮은 시세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물건너간 상고법원, ‘판결문 공장’ 전략?... “대법관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대법원 부서 세분화해야 효율성 ↑”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파일 196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4년 8월 31일자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분석이 담겼다.

2015년 7월 13일자 ‘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를 포함한 검찰 조직 확대 등 ‘법무부 빅딜’ 카드도 적혀있었다.

같은해 1월 5일에 작성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친 검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

환’으로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부가 전방위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앞으로 도입이 어려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 통제와 법원 장악 등 사법농단으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에 물리는 엄청난 사건 수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2만 8040개였던 상고심 사건 수는 2009년 3만 2361개를 기록했다.

이후 사건은 점차 늘어나 2016년 4만 3694개로 경증 뛰었다.

같은 해 처리된 사건 수 4만 3129개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친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나눠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봐야 할 사건 수가 3317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요건이 미비할 경우 각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있다. 대법관 수가 두 배 늘면 부담이 반감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물론 검찰도 전문화되는데, 판사는 민사와 형사를 맡다가 노동 관련 재판을 하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민사와 형사로만 나누지 말고, 민사 1~2부·노동부·조세부 식으로 전문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대법원 사건 수의 증가는 결코 상고법원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대법관 수를 두 배 정도 늘리되, 대법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법종 기자 jiker@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인천시 “균형발전 중심 조직개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초석 마련
도시재생·일자리경제 등 부서 신설
청년복지·고용 해결 조직 확대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민관 협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부서를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일자리창출, 남북교류 등 민선7기 공약사업 중심으로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천형 협치·혁신·소통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한다. 또한 시장 직속 기구로 협치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을 두고 민관협력, 혁신, 마을공동체, 소통 업무 전담 부서를 산하에 편제한다.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원도심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로 변경하고, 그 밑에 원도심재생조정관(전문임기제)을 채용해 도시재생국과 도

시균형계획국을 이끌어 나간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으로 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해 일자리경제본부로 신설하고, 산하에 3급 기획관을 두는 체제로 개편한다.

이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가장 의지를 보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알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위원회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경제본부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복지와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할 조직을 확대·개편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인천시장 공약 1호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위한 조직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가칭)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동해안 벨트가 선점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향후 서해평화청, 남북교류협력사업, 서해평화포럼 등 평화도시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총32명(전문임기제 제외)을 증원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안건 통과 후 2018년 10월 1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갈 첫 조직개편으로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추진할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시민을 위한 조직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w@metroseoul.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공사·출연기관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구감소 해결책은 기업유치·창업”

김영록 전남지사 인구문제 해결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서재필에서 열린 공사·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 인구문제는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출산율이 있어선 비교적 높은 편이다”며 “하지만, 인구유출이 많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일자리에 연계해서 중요한 문제로 보고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그런 성과를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청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직제표에서도 도지사 위에 200만 전남도민으로 해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도

민제일주의로 일하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며 “출연기관들도 일하는 면에서 본청과 차이가 없어 그런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일해 줄 것”을 덧붙였다.

그는 도청 슬로건과 관련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은 전남이 가진 여건이 생명의 땅이란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를 잘 활용해 우리도 당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항상 으뜸이란 목표의식을 갖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남도와 목포,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목포와 진도군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 수목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가 함께 열리는 기간이 같기 때문에 상생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군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기지 수첩

김 남 중
(지방자치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진도군의회가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4년 간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 했다.

앞서 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과 군의원 각각 1석씩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군수)과 의결 기관(군의회)을 압도적으로 장악 했다.

집권 여당에 의한 지방 권력 독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과 자치 분권이 탄력을 받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종속되고, 견제와 감시 보다는 거수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소수 야당과 무소속에 표를 던졌던 민의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야 하는 과제 안고 있다.

다행히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뤄 구성하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나 견제 세력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이제부터 군의회는 원(院) 내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민선 7기가 비리와 부패, 낭비와 비능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틀어줘야 한다.

현재 민선 7기 군정은 출범과 동시에 ‘이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이라는 틀에 갇혀 버린 상황이다.

이 군수의 3선 성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정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주의에 빠

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1년 뒤인 오는 2020년 5월 30일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간, 소속 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줄서기 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 7기 군정이 앞으로 4년 뒤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제8대 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회의 역할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감시와 강력한 견제 등 제8대 군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과거 제7대, 제6대 때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이 일해야만 한다.

군민들도 민선 7기 군정과 제8대 군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천시

시니어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베이비붐세대의 조기 은퇴자 등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인 40+ 시니어 창업스쿨 2기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40+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준비 없이 창업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시니어 대상 전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만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2년 이하)로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인천IT타워(남구 경인로 229) 6층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광주 서구 청사 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포토존’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청사 민원실 내 신혼부부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추억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고 구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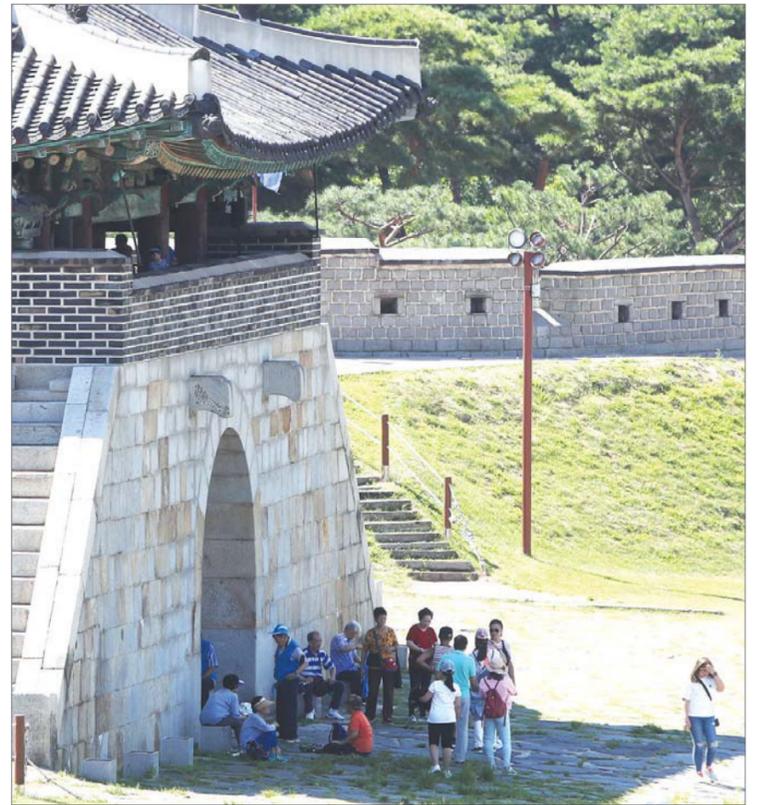
민원실내에 설치된 포토존은 신혼의 아름다움을 둘이 같이 시작해 나가는 의미로 행복한 집을 배경 이미지로 정했다.

지붕에는 ‘우리 광주 서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요즘 젊은이의 트렌드로 여행지, 맛집, 기념일 등을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고 착안했다.”며, “포토존 설치로 기존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그늘 밖은 위험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창룡문을 찾은 관광객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에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보리·밀 종자 54t 공급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산 정부보급종(보리·밀·호밀) 종자 54t을 확보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종자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대상 품종은 4개 품종이며, 품종별 수량은 흰찰쌀보리 26t, 새쌀보리 20

t, 금강밀 7t, 곡우호밀 1t이다. 가격은 20kg 한포에 쌀보리는 소독분 2만7800원, 미소독분 2만6400원이며, 금강밀은 소독분이 2만6600원이고, 곡우호밀 소독분은 3만6000원이다. 금강밀과 곡우호밀은 전량 소독분만 공급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중 호밀(곡우)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풀사료, 건조사료, 발효사료, 지력증진 등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호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MASERATI
COLLECTION

류영진의 의약품 외교 결실... 베트남 2000억시장 지켰다

(식약처장)

(수출)

베트남 의약품 입찰 2등급 유지
류 처장 베트남 방문해 거둬들여
등급 하락하면 수출 70% 줄어
제약사 불안 해소... 한숨 돌려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2000억대에 달하는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 하락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으나 베트남 정부에서 국내 의약품의 입찰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덕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등급 유지는 올해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입찰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직접 베

트남을 방문해 등급 유지를 거둬들여온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의 베트남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EU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시장에서 1~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2등급으로 인정하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PIC/S 가입국으로 당시만해도 의약품 입찰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의 70%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는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류 처장은 베트남 정부와 2등급 유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처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서 2등급 유지에 대해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전문을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개정은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품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과정에서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의약품 입찰기준 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류 처장도 베트남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국제규제화회의(ICH) 회원국이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 시 2등급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국내 제약사가운데 유럽 GMP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등급 경우 개별 제약사별로 직접 베트남 정부(의약품 관리기관)의 GMP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해당 등급에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PIC/S, ICH 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PIC/S 및 ICH 가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보건부에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1등급으로도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제약바이오協 “등급 하향 막은 정부에 감사...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을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재확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협회와 196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4월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 측의 6등급 하향조정이 불거진 이래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비롯해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격을 지켜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 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6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베트남은 의약품 수출 4위국(2017년 기준 2200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조정될 경우 의약품 수출 규모의 급락은 불가피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협회는 "이에 식약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국은 물론 류영진 처장까지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순방 당시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우리 의약품 입찰 등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와 공조하에 베트남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보건부·제약협회·유관기관 및 현지 관계자 등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세우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류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당국자들과 외교체널 가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협회 내 베트남 TFT,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제약기업 지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베트남 의약품 입찰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의약품의 6등급 추락을 막고 2등급을 지켜낸 것은 국익을 지켜낸 식약처의 탁월한 외교적 성과로, 향후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통상 등 국제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아 향후 글로벌 이슈 대응시 참조할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베트남 제약협회와의 미래포럼을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여성벤처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과 여성벤처 지원 '맞손'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여성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여성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정보 상호 교류 ▲연구개발 지원 및 성능평가 ▲개발제품 판로개척 등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했다. 여성벤처협회 윤소라 회장(왼쪽)이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윤갑석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고객지원 본부장에 김웅 전 광주銀 본부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김웅 전 광주은행 본부장(사진)을 고객지원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김웅 상무는 30년간 광주은행 근

무 등의 경력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금융, 기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메인비즈기업은 물론 협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전기레인지

청호나이스 하이브리드 2종 출시

청호나이스는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사진)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기 유도가열방식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열효율이 높으면서도 사용하는 데 안전한 인덕션 2구, 푹배기 등 다양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화구로 구성됐다. 또한 전기레인지 사용 중 최대



전류 초과 시 에너지를 자동 분배하는 에너지 셰어링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일드락, 자동꺼짐, 예약타이머 등의 안전장치

로 사고와 화재의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음식에 특화된 팬, 우림, 가열, 보온, 물끓임 등 5가지 세프모드를 갖춰 터치 한번으로 불 조절에서 시간 조절까지 자동으로 설정, 요리 과정이 편리하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출시 기념으로 전기레인지 구매 시 50만원 상당의 독일 브랜드 실리트사의 인덕션 전용 용기 4종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일사불 가격은 B700모델은 159만5000원, F700모델은 198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호 기자 bada@

약사 300여 명 초청 ‘지식 공유의 장’ 열어

GC녹십자 ‘GC 파머시 포럼’

GC녹십자가 약사 대상으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GC녹십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창원 등에서 지역 약사 300여명을 초청해 'GC 파머시 포럼(GC Pharmacy Forum)'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GC 파머시 포럼'은 특정 질환을 주제로 선정해 저명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학술 행사다.

회사 측은 제품 홍보에만 그치던 기존 포럼의 형식을 탈피해 질한 별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약국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약사 대상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증'을 주제로 김미정(한양대재활의학과), 이종화(동아의대 재활의학과), 이주연(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손기호(경성대학교 약학대학) 교



수 등이 '통증'과 관련된 질환과 치료법, 의약품의 특징 등 약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의학정보를 소개했다. /박인용 기자

/박인용 기자

멕시코 동부 넘어 서부 지역까지...

현대그린푸드, 진출 2년 만에 단체급식 수주 급팽창

멕시코서 단체급식 사업장 5곳 운영 'K-FOOD' 알리고 메뉴 현지화 힘써

현대그린푸드가 멕시코 현지 단체급식사업 확대에 나선다. 기존 멕시코 동부 지역에 이어 서부 지역에 신규 단체급식 사업을 추가로 수주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종합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는 멕시코 서부 지역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트랜스리드'의 직원식당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트랜스리드 근로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일평균 약 7000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출 규모는 연간 최대 40억원이다.

특히 떡볶이 탕, 조림, 볶음 등이 가능한 직화 조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한국식 조리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정통 멕시코 요리 외에도 다양한 한식



멕시코 몬테레이 사진.

/현대백화점그룹

을 선보이며 'K-FOOD'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멕시코 현지 직원식당에서 인기가 높은 잔치국수, 갈비, 제육볶음 등 한식 메뉴를 신규 식당에서도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한식 레시피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기존에 멕시코 현지 식품업체가 현대트랜스리드의 직원식당을 운영했으나, 맛과 위생에 대한 현지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업체 측이 현대그린푸드에 직원식당 운영을 제의해 와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했다. 이번 직원식당 운영으로 현대그린푸드는 멕시코 지역에서 총 5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하게 됐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16년 멕시코 동부에 위치한 몬테레이 지역의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을 시작으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멕시코 진출 2년 만에 단체급식사업이 확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양한 메뉴 개발과 위생 관리 시스템 등 한국식 단체급식 시스템이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16년부터 멕시코 현지식을 포함해 1500여 개의 단체급식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멕시코 문화를 고려해 '어린이 장난감 받는 날(Dia de los Reyes Magos)' 등 멕시코 현지 기념일에 멕시코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등 메뉴 현지화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단체급식장에서 사용하는 100여 개 항목의 위생 점검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해 기존 현지업체가 운영했던 직원식당보다 업그레이드된 위생 상태를 선보이고 있다. 장재락 현대그린푸드 푸드서비스사업부장(상무)은 "맛과 위생을 앞세운 한국식 단체급식 서비스가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호평받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현지 기업과 현지인들의 호감도도 높아져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해외 단체급식사업으로 4개국(쿠웨이트·UAE·멕시코·중국) 50개 사업장에서 6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해외 매출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 "피코크 '고수의 맛집' 8종 맛보세요~" 이마트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피코크 고수의 맛집' 상품 8종을 종류에 상관없이 '2만원 이상 구매시 3천원 할인'하는 행사 진행을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마트24, 홈캉스족·오피스족 겨냥 할인행사

이마트24가 한 달간 홈캉스족과 오피스족을 겨냥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홈캉스족(1~2인 가구)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봉지면류 상품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7월 독신주택가 입지의 점포를 대상으로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봉지면류 매출이 평균 대비 190%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마트24는 일반 라면을 비롯해 쫄면, 볶음면 등 다양한 종류의 봉지면류

음 상품 5종을 선정, '라면 최저가 도전'을 기획했다. 행사상품은 진라면 순한맛(5입), 진라면 매운맛(5입), 진짜쫄면(4입), 불닭볶음면(5입)이다.

봉지면류 묶음 상품 5종을 제휴카드(BC카드)로 결제 시 판매가의 최대 40% 할인된 가격인 2140원~3840원에 구매 가능하다. KT 멤버십을 적용하면 10% 추가 할인된다. 또한, 냉장커피 21종을 종류에 상관없이 3000원 이상 구매 시 30%를 할인해준다. 여기에 제휴카드(우리카드, NH농협카드)를 결합하면 판매가의 최대 56%까지 할인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롯데 온리 페스타' PB상품 최대 50% 할인

백화점·하이마트 등 8개 계열사 엘포인트·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롯데 유통사업부문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롯데 온리 페스타(LOTTE Only Festa)'를 진행해 가계 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롯데 유통사업부문의 백화점, 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마트 등 8개 계열사의 PB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찾는 고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 대표 PB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의 경우 우유, 생수, 요구르트 등의 대표 생필품군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먼저 '롯데 온리 페스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롯데 유통사업부문 8개 계열사 PB브랜드 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111명에게 최대 1000만 엘포인트(L.Point)를 제공한다. 또한 각 계열사별로 방문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해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할인권 등을 증정한다.



직원들이 롯데백화점 본점 엘리든 매장에서 롯데 온리 페스타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은 '롯데TOPS', '엘리든' 등 대표 PB브랜드의 여성리유, 가방, 주얼리, 스포츠웨어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는 '하이메이드'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여름 가전용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냉장고, TV 등 행사 상품 구매 시 엘포인트를 최대 2만 포인트 지급한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셀렉트 티라미수빙수'를 포함한 6종의 인기 PB상품을 1+1로 판매하며, 롯데마트는 '온리프라이스', '요리하다', '초이스엘'

에 대해 합산 구매 금액 7만원 이상인 모든 고객에게 5000원 할인권을 즉시 증정하며, 온리프라이스 200대 품목 구매 시 엘포인트를 20배 적립해준다.

롯데 유통사업부문 이원준 부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동일 상품과 비교해 가성비가 뛰어난 롯데 유통사업부문 계열사의 PB브랜드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GRS, AI 활용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

롯데GRS가 무인주문 기기, 스마트오더 등에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채널 서비스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는 카카오 챗봇이 매장 직원의 역할을 수행해 대화하듯 간편한 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로 위치 기반 서비스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안내하고, 별도 대기 시간 없이 픽업이 가능한 서비스다.

사용법은 롯데리아 또는 엔제리너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챗봇으로 주문하기'를 누르거나, '롯데리아 챗봇', '엔제리너스 챗봇'을 검색해 대화를 나누면 된다.

이후 인근 매장을 선택하면 베스트 메뉴가 자동으로 추천되고, 원하는 메뉴가 없는 경우 키워드 검색하거나, 하단의 버튼으로 호출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대화형의 문장의 의도를 파악해 챗봇이 이해하고 답변한다. /박인용 기자

하이트진로, 수출 전용 '자두에이슬' 출시

하이트진로가 미국시장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8월부터 미국 전 지역에 '자두에이슬' (사진)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자두에이슬을 출시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청포도에이슬을 비롯해 이슬톡톡, 망고링고 등을 출시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과일리큐르에 대한 현지인 반응이 좋아 세 번째 신제품인 자두에이슬을 추가 출시해 성장에 이력이라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월 수출전용 브랜

드로 자두에이슬을 해외에 출시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자두에이슬은 참이슬의 깨끗함과 자두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최고의 조화를 이룬 13도의 과일리큐르로, 사전 글로벌 소비자 시음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과일리큐르의 성장에 힘입어 진로아메리카의 실적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2306만달러(약 258억원)를 기록했다. 미국시장에서의 이 같은 성장은 L.A를 중심으로 한 교민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참이슬, 하이트 등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장은 "자두에이슬 출시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리큐르 제품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음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KB국민은행, '똑똑한 ATM' 운영 확대

스마트 텔러머신 시연회 개최·운영

KB국민은행이 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해 '스마트 텔러머신(STM)' 시연회를 개최하고 운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STM은 기존 금융자동화기기(ATM)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지능형 자동화기기다. 신분증 스캔, 손바닥 정맥 바이오인증, 화상상 담 등을 통해 영업점 창구에서 가능한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고객은 STM을 통해 체크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보안카드·OTP 발급, 통장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자동화기기(CD, ATM) 통장 출금 등록 등 영업점 창구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입출금 및 계좌 송금 등 기본적인 ATM 업무와 개인정보 변경 등도 가능



허인 KB국민은행장이 1일 '스마트 텔러 머신(STM)' 시연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다.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강남역, 가산 디지털 종합금융

센터 등 일부 영업점에 STM 파일럿운영을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 영업점 중 고객 디지털 금융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총 30여 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STM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STM 이용고객은 통장 재발급 수수료(3000원) 및 카드형 OTP 발급 수수료(1만 원)를 전액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이번 STM의 운영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영업점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고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앞으로 STM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고객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KT&G

인도네시아에 대학생 봉사단 파견

KT&G가 인도네시아에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오는 8월 10일까지 현지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KT&G의 대학생 봉사단 '상상발전티어(Volunteer)' 42명과 인도네시아 대학생 12명, 임직원 11명 등 총 65명으로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찌카랑(Cikarang)'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아스리(Asri)' 마을에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봉사를 진행한다.

봉사단은 12일 간의 봉사를 마무리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공유하는 교류행사도 마련했다.



KT&G가 인도네시아에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한다. /KT&G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롯데홈쇼핑 강화군과 MOU... 농특산물 판로 지원

롯데홈쇼핑은 1일 강화군청과 강화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강화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롯데홈쇼핑 박재홍 온라인사업부문장과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화 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 및 판로 확대 ▲강화 지역 관광 자원 활용한 체험 및 여행 상품 개발 등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T커머스 채널 '롯데OneTV'를 통해 '강화섬살 고시하카리플러스'를 단독 론칭했다. 인터넷쇼핑몰 '롯데

아이몰'에서 약속한우, 갯벌장어 등 강화 특산물을 선보이며 판매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오는 9월에는 강화군의 대표 향토음식인 순무김치를 '롯데OneTV'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강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군과 협업체 농촌 체험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이 상생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4월 제주연구원에 이어 두 번째다. 유통 판매채널을 활용해 우수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롯데홈쇼핑은 강화군과 '강화농특산물유통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 박재홍 롯데홈쇼핑 온라인사업부문장, (오른쪽) 유천호 강화군수. /롯데홈쇼핑

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모바일 앱 상에 '제주 여행 전문관'을 오픈했으며, 올해 안으로 실시간 항공권 구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위메프

20대 눈높이로... 캠퍼스 쇼퍼 모집

위메프는 대학생 분석 체험단 '캠퍼스 쇼퍼'를 이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캠퍼스 쇼퍼는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20대 대학생 리뷰어라는 의미를 담았다.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쇼핑 지원금을 전달하고, 실제 구매를 통해 제품 품질, 가격, 배송 및 CS 등 위메프 서비스 전반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캠퍼스 쇼퍼로 선정된 40명의 대학생은 위메프가 제공한 20만 포인트로 약 2주간 2회 이상 쇼핑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 구매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 1차 모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8회에 나눠 진행되며, 이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이 중 우수 활동자 10명은 '베스트 쇼퍼'로 뽑혀 위메프 담당자와 만나는 2차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베스트 쇼퍼에게는 50만 포인트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2일 (음 6월 21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오라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음은 명심. 6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소핑도 한 방법이. 72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일이 잘 풀린다. 84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고인 매듭을 풀어나가자.	 54년생 자손이 상을 받게 되니 기쁘다. 6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78년생 가까운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9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49년생 한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한 법이다. 61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73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 겠나. 85년생 물도 조심해서 마셔야 하는 법이다.	 55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니 일희일비는 금물. 6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79년생 남에게 준 상채는 내게로 돌아오는 법. 91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50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62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하다. 74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86년생 밖은 꽃이 피었는데 내 마음은 겨울.	 56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68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80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92년생 자기중심으로부터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51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금물. 63년생 오래전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다. 7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87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57년생 자식의 충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8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재. 93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52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다. 64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 사랑. 76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88년생 작은 먼지로도 눈이 아플 수 있다.	 58년생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70년생 밤이 깊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2년생 상대의 실수가 나에게 기회로 온다. 94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53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65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89년생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용서 하는 것이다.	 5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아쉽게 좋은 날. 71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83년생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95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김상희의四季

작은 서점과 운세 경영

동네 골목길 어귀마다 서점이 하나씩 자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옛날이라고 하기는 너무 가깝고 요즘이라고 하려면 오래전의 모습이다. 동네 사랑방 같았던 서점들은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서 조금씩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사라졌던 동네서점들이 하나씩 돌씩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로 본다면 서점이 생겨난다는 건 조금 의외의 일이다. 더구나 큰 서점도 아니고 작은 서점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요즘 생기는 작은 서점들은 자기만의 특징을 갖춘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서점에서 간단한 맥주를 팔기도 하고, 독서토론 같은 다양한 모임을 열기도 한다. 심리 상담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음악공연을 열기도 한다. 독특한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작은 서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운세 활용방법도 작은 서점의 경영에서 빌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재물이 있으면 성품이 모질거나, 공부 잘하면 배우자운이 약하다. 사람이 있으면 재물이 모자라는 식이다. 넘치는 게 있으면 무언가 모자라는 것도 있는 게 자연의 조화이다. 운세 또한 돈이 벌리는 시기가 있으면 나가는 시기가 있다. 승진을 이루는 때를 지나면 집안에 불화가 빚어지는 운세가 찾아온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사업은 잘되는 부조화의 운세가 동시에 나타난다. 운세를 겪는 당사자는 부조화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그게 운세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세의 이런 특징을 잘 살피고 사주에서 자기에게 충분히 넘쳐나는 것들을 특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재물 운이 있으면 재물에 집중을 하고 결혼 운이 좋으면 배우자와의 인연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다면 인맥을 특화시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장기로 삼으면 된다. 그런 특화된 기운으로 경쟁력이 강해진다. 운세도 힘 많은 운세는 잠시 밀어두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살아있는 운세를 활용해야 한다. 재물이 필요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시험을 볼 때 상황에 유리한 운세를 최대한 끌어와서 써야 한다. 운세를 특화시키면 작은 서점처럼 나름대로의 장점을 만들 수 있다. 썰물처럼 사라지던 작은 서점들이 다시 생겨나는 건 자기만의 특화된 마케팅 포인트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 서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8		3		
		8	2					4
1			7					
	6			8				1
3		2	4		1			
	8		6	2		3	5	
6				7			8	2
			8		9			
		5		3		6		

								2
			1			8	6	
	7				5	4	3	
						1	9	
			9		5			
	3	7	4					
	9	2	8	7				5
1					9			7

스도쿠 정답

2	7	9	2	1	5	6	8	
1	5	6	9	8	2	7	3	
2	8	6	7	3	5	1	9	
6	5	1	2	9	1	8	7	
8	9	2	1	6	7	3	5	
1	2	7	5	8	6	9	4	
5	6	8	4	7	9	2	1	
7	1	9	5	2	8	3	6	
9	2	3	8	1	6	7	4	
7	1	2	6	5	8	9	1	
5	1	9	8	2	6	7	3	
6	8	2	1	9	7	3	5	
1	2	3	8	5	1	6	7	
8	7	5	9	2	6	1	4	
9	6	1	7	4	3	5	2	
1	4	7	5	8	2	9	1	
2	9	8	6	7	4	1	5	
3	5	6	1	9	7	8	2	

문제 제공= 보너스

간이·일반과세자 선택 노하우



서 중 택 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창업하면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때도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해 절세할 수 있다. 여기서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과세유형의 구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간

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해 납부세액을 결정해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 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기에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원재료 구매 등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정해져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5%, 소매·재생활자급판매·음식점업은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림어업은 20%, 건설·부동산임대·그밖의서비스업은 30%이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도매업으로부터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을 매입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액 3300만원×부가율(10%)×세율(10%) - 매입세액 100만원×부가율(10%)인 23만원만을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3300만원(공급가 3000만원+매출세액 300만원) 매입비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의 경우 매출세액 300만원 - 매입세액 100만원인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초기 인테리어나 채고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하였다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현중세무회계 서중택세무사



KSD, 부산대와 금융인재 양성 맞손

한국예탁결제원과 부산대학교가 금융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예탁결제원과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1일 부산대학교에서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이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지난달 31일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NH농협은행, SNS 우수팔로워 명예홍보대사 위촉

NH농협은행이 지난 31일 서울시 중구 반얀트리 페스타다

이점에서 SNS 팔로워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우수 팔로워 21명을 SNS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공식 페이스북 팔로워는 102만 명,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22만 명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12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첫번째)이 SNS 우수 팔로워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이후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NH농협은행

스튜어드십코드 단상



기지 수첩

손 엄 지 (파이낸스&마켓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마침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6년부터 코드 도입을 준비하고, 지난해 본격 연구용역을 거쳐 탄생한 귀한 제도다. 귀한 지식(?)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민연금은 지난 달 17일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6일 초안 도입을 공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간 의견 대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자리에선 "이런 엉터리가 어딤냐"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30일 열린 '제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대립을 겨우 봉합하고, 초안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겨우 봉합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다. 앞서 국민연금은 사외 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권 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검토' 사안으로 미루면서 노동자 측 일부 위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동자 측 위원들의 입장을 수렴해 '제한적 경영참여'만 하겠다

는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내놨다.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지만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또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안여건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안 도입 때 겪은 '난항'은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은 무엇인지, 구비해야 하는 '제한여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서다. 국민연금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때 노동자 측, 사용자 측 모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sonumji301@metroseoul.co.kr



유유제약,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에 의약품 기부

유유제약이 오는 8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 의약품 3종 1500세트를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비나폴로, 베노플러스겔, 유가드액 등 의약품 3종 1500 세트 기부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레슬링 국가대표 김현우 선수(왼쪽부터), 유유제약 유원상 부사장, 태권도 국가대표 오혜리 선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유제약



세븐일레븐, 경영주 자녀 500여명과 '행복충전 시네마데이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전국 가맹점 경영주 및 자녀 500여 명과 함께 행복충전 시네마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1일 오전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수도권 점포 경영주와 자녀 200여 명을 초청해 8월 신규 개봉작 '신과함께-인과 연'을 관람했다.

/세븐일레븐

롯데JTB

박재영 신임대표 선임

롯데는 롯데JTB 신임 대표에 박재영 영업부부장(사진)이 단독대표로 선임됐다고 1일 밝혔다.

롯데JTB는 롯데와 일본 최대 여행기업 JTB의 합작으로 2007년 설립된 여행관광 전문회사다.



롯데JTB는 최근 실적이 지속 성장하는 등 롯데와 JTB간 파트너십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양사 합의 하에 기존 공동대표

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단일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인사

- ◆**통일부** ◇과장급 정보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최용석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 박상돈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정보 △감사관 변경안 ◇과장급 정보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성용
- ◆**국도교통부** ◇과장급 정보 △항공정책실 행정시설과장 배소명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임용 △민원조사단장 김영신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 승진(납급) △전

략양식부장 박미선 ◇과장급 승진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배봉성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장 허영백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승진 △류기정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기획팀장 서영조 △경영기획팀장 강성준 △정책팀장 배대웅 △인재경영팀장 배석현 △총무복지팀장 김대욱
- ◆**아프로서비스그룹** ◇아프로서비스그룹 △부사장 남광혁 △이사 탁용원 ◇OK저축은행 △이사이정우 △홍보실장 조성익 △부평지점장 황의욱 △가산지점장 이원우 ◇OK캐피탈 △자금부장 김동훈
- ◆**동양생명** ◇승진 △용자팀장 신창호 △기업금융팀장 김의경 △업무지원팀장 최인경 ◇전보 △디지털혁신파트장 송남중
- ◆**한화생명** △홍보실장 김영식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본부장·부장 △홍사영 부소장 △안해성 친환경운송연구본부장 △신승호 해양플랜트-에너지연구본부장 △김선영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장 △박종민 해양ICT연구본부장 △강성길 정책협력부장 직무대행 △박문배 감사부장 △정찬규 기획부장 △송우용 행정부장 ◇센터장·실장 △김형우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장 △문덕수 해수에너지연구센터장 △박철수 해양방위연구실장 △정인 정책개발실장 △신동욱 기획

예산실장 △서재성 연구관리실장 △양준혁 성과확산실장 △윤재열 인재경영실장 △박도연 총무구매실장 △오용준 인프라운영실장

부음

- ▲ 정소영(전 농수산부장관) 씨 별세, 박재욱 씨 남편상, 정창화·준화·명화·은화 씨 부친상, 최동진(번호사) 씨 장인상, 서미혜 씨 빙부상 = 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장지 대구 달성군 선산. ☎ 02-2072-2091
- ▲ 김호성 씨 별세, 김광준(한국예탁결제원 펀드서비즈부 차장) 씨 부친상 = 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17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 ▲ 안영도 씨 별세, 최익수(부산메리놀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최종임·최동준(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내과 교수)씨 모친상, 전영섭(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씨 장모상, 배혜정(부산 해운대백병원)·김지영(한외사)씨 시모상 = 7월 31일 오후 3시, 부산 메리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 051-465-1024
- ▲ 서남미 씨 별세, 황재철(전 한경닷컴 대표) 씨 모친상 = 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 051-636-4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영일(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206 2002년 5월 28일 제 40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105호

경희대, 세계 대학평가서 국내 첫 10위권 진입

(호텔관광분야)

호텔관광분야 세계 8위·국내 1위
평가대상 54개 중 28개 순위권에
생체의학공학 등 100위 내 진입



내에 진입했다. 100위권에 오른 학문분야는 지난해 2개에서 올해 4개로 늘었다.

치의학, 약학, 식품공학, 에너지공학, 간호학, 농업학은 200위권, 화학공학, 의료기술, 건축공학, 생명공학, 기계장비, 전기전자공학, 정치학, 재료공학, 화학, 공공보건, 기계공학은 300위권에 랭크됐다.

특히 공공보건 분야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지난해보다 27.7점 상승한 데 힘입어 147단계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국내 종합대 중 순위를 보면, 정치학과 농업학 분야가 2위, 치의학과 약학 분야가 3위, 통신공학과 공공보건 분야가 4위, 경영관리, 건축공학, 전기전자공학, 간호학 분야가 5위에 올랐다.

◆ 논문 피인용 지수 등 '학술 역량 평가'서 우위

상해교통대 세계대학 평가는 평판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전경.

/경희대

등 주관적 정성 평가를 배제하고, 학술 역량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의 학술 역량을 가능해 줄 수 있는 지표다. 평가는 대학교 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고등교육정보기관 상해랭킹 컨설턴스에서 주관하고, 전 세계 4000개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와 학문 분야 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매년 8월에 발표된다.

올해 학문분야 평가는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의과학, 사회과학 등 5개 학문 영역, 54개 학문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 지표는 ▲2012~2016년에 발표된 SCI(E), SSCI급 논문 수 ▲학문분야별 표준화 피인용 지수 ▲2012~2016년에 발표된 논문 중 국제 협력을 통한 논문 비율 ▲2012~2016년에 학문분야별 상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 ▲1981~2016년에 해당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상을 수상한 실

적 등이다.

경희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2018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도 15개 학문분야가 상위 200위에 올라 세계적인 학문분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는 호텔 및 레저는 물론, 국제개발학, 언어학, 재료학, 현대언어학, 화학공학, 농·임학, 약학, 정치·국제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경영학, 법학, 건축학 등이 평가 상위에 랭크했다. 이 중 국제개발학 분야는 국내 종합대 2위, 지리학 분야는 국내 종합대 3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대학 최상위권이였다.

이처럼 경희대가 각종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는 판단 아래 대학 문화 정착과 함께 전공·계열·개인별 지원제도를 수립해 운영하는 등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초등학교 방문 절차 까다로워진다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 단계적 시행
시교육청,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권장

앞으로 졸업증 등을 떼러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로 지어지는 학교나 중·개축되는 학교 건물은 외부인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런 방안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발생을 계기로 서울

시교육청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우선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방문 신청자가 학교 방문을 신청하고, 학교보안관이 방문자 신분을 확인해 출입하도록 한 제도다. 학교보안관은 방문자의 귀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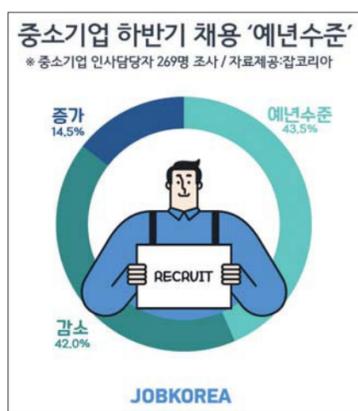
학교 체육대회 등 외부인 출입이 많은 때는 학교가 가정통신문에 '방문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방문자가 방문 확인증을 소지해야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홍수 기자

중소 14.5%만 “작년보다 더 채용”

잡코리아,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조사

42% “작년보다 더 적게 채용”
이유 1위 ‘경기회복 기대 낮아’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69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채용시장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명 중 2명에 해당하는 43.5%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42.0%는 '작년 하반기보다 더 적게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작년 하반기보다 더 많이 채용할 것'이라는 기업은 14.5%에 그쳤다.

하반기 채용시장 규모를 예상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48.0%), '기업의 경영여건이 나빠져서'(41.6%) 등이 높게 나타나, 경

망자들은 그 이유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아져서'(59.0%)를 꼽았다. 경기전망보다 기업 경영여건이 하반기 채용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기 인사담당자들에게 올 하반기 중소기업 채용 트렌드(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면접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0.2%로 가장 높았다. '인턴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도 응답률 47.2%로 뒤이어 높았고, 이외에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될 것(32.3%) ▲AI채용전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20.1%) ▲채용시험(필기시험)을 보는 기업이 증가할 것(9.7%) 순으로 높았다.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은 "블라인드 채용 전형이 확산되면서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채용시장에서도 서류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면접을 강화해 지원자를 선발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홍수 기자

대학가 소식

숙명여대 고교생 홍보광고 체험 'PRAD 캠프'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는 지난달 27일~28일까지 1박 2일간 고교생 대상 제7회 PRAD 캠프, PARTY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캠프는 미래 광고인 또는 홍보인을 꿈꾸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광고 전공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첫 개최된 이후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열리고 있다.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는 지난달 27일~28일까지 1박 2일간 고교생 대상 제7회 PRAD 캠프, PARTY를 개최했다. /숙명여대

올해 참가학생들은 서류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40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홍보광고학과 PR학회 프로필, 광고 학회 애드벌룬 학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광고학과 전공 교수들의 광고 특

강, PR 특강, 동문 선배의 실무자 특강, 국제광고제 수상작 시청, SNS 광고 트레이닝, 팀별 브랜드 기획서를 직접 작성해 발표하는 경쟁PT 등에 참여했다. /한홍수 기자

삼육대 전국 음악 콩쿠르 23~24일 '팡파르'

삼육대학교는 문화예술대학이 주최·주관하는 제20회 삼육대학교 전국 음악 콩쿠르가 오는 23~24일 교내 음악관과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고교, 대학생, 일반부 및 재수생, 아마추어부(비전공) 등이며,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기 부

문 포함), 작곡(미디어, 국악 작곡 포함)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체대상과 부문별 1등, 2등, 3등,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또 각 부문 고등부 1, 2, 3등 입상자에게는 삼육대 수시모집 예능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다. /한홍수 기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교육부, 통학버스에 설치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맨 뒷자리 벨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상 차량을 약 1만5200대로 파악하고 있고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뒤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설치비가 약 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4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한홍수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 “직장내 세대차이 느껴”

'젊은시절 이야기 하는 상황' 1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에서 세대차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람인이 직장인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가 '세대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시작할 때(54.1%, 복수응답)와 같이 지나간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세대차이 느끼는 순간 1위로 꼽았다. 이어 '출퇴근시간, 인사방식 등 태도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46.7%), '줄임말, 신조어 등 요즘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33.7%), '인스타그램 핫플 vs 재테크, 관심사가 다를 때'(27.5%), '삼겹살에 소주 vs 문화회식, 회식음주문화가 다를 때'(23.7%), '회의, 메신저 활용 등 업무 방식이 다를 때'(23.4%), '점심메뉴, 회식메뉴 등 식사메뉴 취향이 다를 때'(21.2%) 세대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급(35.5%)과 대리급(46%)은 부장급 상사와 세대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 /한홍수 기자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metro경제

행사개요 및 문의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 - 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 최 : 메트로경제

후 원 : 북방경협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대전 본사에서 2018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 윤리경영 앞장 '청렴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소진공은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18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흥빈 이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약 200여명의 결의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가 순차적 결의대회를 통해 총 649명의 직원이 청렴결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5개년 중장기 윤리경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청렴 달성 ▲스스로 점검·관리하는 청렴진단 구성 ▲부패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감사 지원 ▲윤리의식을 내

재화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추진과제로 '청렴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 수상작으로 발굴된 '내 清廉(청렴) 지킴이', '동행출장 여비수령 조항'을 신설한 것과 함께 ▲정책고객대상 청렴소통체계 구축 ▲고위직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등 27개 과제도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만나는 서민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조직 내부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노하우' 나눈다

안전보건공 우수사례 사업장 전파

최근 갑질 고객문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기업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기업의 우수 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인텔레서비스는 '직원의 주체적인 삶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삼고 콜센터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심리상담실을 통한 면담·심층면담·연계치료 과정을 제공하고 블랙컨슈머 응대 프로세스를 통한 전화를 끊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통화연결음을 상담사의 가족·친구가 녹음한 음성으로 바꾸고 고객들이 상담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

통체널도 구축해 접수된 고충 개선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접수된 고충의 93.7%가 해결됐다.

또한, 심신이 지친 상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사내카페, 안마의자가 설치된 휴게실, 스트레스 해소존 등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공단은 "위 사례를 통해 직원 만족율은 87.2%로 조사됐다"며 "1년 초과 근무인원의 이직율이 기존 2.2%에서 1.3%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300인 미만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이블랜드호텔엔리조트는 'HEALING TREE PROJECT 2020'을 슬로건으로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감정노동 정도 파악을 위한 검사 및 개별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 핫라인, 웃음·미술 치료, 분노조절 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농협, 농민 전용 방송 만든다

'NBS 한국농업방송' 14일 개국 김병원 농협회장, 환경TV 인수 농산물 시세정보 실시간 전달



농민을 위한 케이블 채널 'NBS 한국농업방송(이하 NBS)'이 오는 14일 개국한다.

1일 농협에 따르면 농민신문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롯데호텔에서 NBS 개국 행사를 개최하고 첫 방송을 시작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겸 농민신문 회장은 '환경TV'를 인수해 농업방송을 준비해 왔다.

농민신문은 지난달 NBS의 성공적인 개국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NBS는

법인이 아닌 농민신문사의 매체 형태로 운영된다.

NBS는 도시와 농촌 간 가교 역할과 함께 농업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축산물의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가락동365', 영농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전해주는 '농업날씨', '농업뉴스' 등이다.

채널 번호는 환경TV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국과 동시에 채널이 NBS로 변경된다.

NBS 개국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경영 철학과 의증이 적극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미래농업인 육성과 농촌 활력화 등을 강조했다.

또 농협 계열사의 경우 설립 취지인 농업인 지원에 맞게 협동조합 정신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농업인에게 존재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계열사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NBS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로 생생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해외농업, 농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마을, 24절기를 활용한 농사정보 제공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Made in Korea' 시대 개막



8월부터 100% 국산만 신규입점 기존제품 빠르면 내년초부터 국산만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언하고 8월부터 신규 입점 제품에 대해 100% 국산만 판매하기로 했다.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등 기존 입점 제품 중 국산이 아닌 외산에 대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퇴출시켜 내년부터는 순수 국산 제품만 100%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7월17일 보도〉

공영홈쇼핑은 1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3주년 기념식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산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 100% 취급하기로 하고 3년전 닳을 올린 뒤 3년 만에 다시 '100% 국산 제품 판매'를 선포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이 그동안 판매하던 농수산물은 모두 국산이었지만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절반 가량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등으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들이었다.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언하고 8월부터 신규 입점 제품에 대해 100% 국산만 판매하기로 했다.

특히 의류나 생활용품, 운동기구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자재 공장, 또는 현지 위탁 생산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국산이 아닌 'made in OOO' 제품을 신규 입점은 이달부터, 기존 제품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의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은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 ▲우수 제품의 명품화 ▲스타트업(Start-up) 제품 판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공영홈쇼핑의 본분을 찾자는 의지에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당장 이날부터 기존 판매 및 발주 상품을 제외한 신규 해

외 OEM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면서 "기존 상품도 협력사와의 협의로 재고 소진시 중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전체 판매 상품 중 20%,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 기준으로 약 40% 가량이 해외 OEM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이날 3주년 기념사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이들의 판로 개척을 돕자"며 "우수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공영홈쇼핑이 일자리 확산과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공영홈쇼핑은 아울러 ▲소비자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는다 ▲공정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명예선언'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8월 2일
음력 : 6월 21일

수도권 날씨
39~2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36 | 해질 / 19: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도로공사 온라인 국민소통단 'ex패널' 공개모집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단, ex국민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ex국민패널은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선발된 ex국민패널은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 혁신계획 실현 방향 설정, 계획 과제의 적정성 검토,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응모는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패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나온다.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도 등 활동 성과가 탁월한 우수 패널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비가 지급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자전거 발전사는 인류 역사… 과학·배려의 아이콘”



인터뷰 자전거 전시회 개최
구자열 LS회장 겸 송강재단 이사장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展에 30년간 수집한 자전거 전시
6박7일간 ‘트랜스 알프스 챌린지’ 질주… 동양인 최초 완주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운송수단이다. 바퀴와 프레임, 안장과 핸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지만 인류에게 전해지는 감성은 그 이상이다.”
송강재단 이사장인 구자열 LS회장(사진)은 한 평생을 자전거와 함께 달려왔다. 지난 2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에 전시된 105대의 자전거는 모두가 30년간 모아온 소장품이다.
구 회장은 “자

전거에 대한 역사와 과학적인 발전과정을 어린이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구 회장은 수집한 자전거 중 ‘볼렌 쉬레그 드라이아네’를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이라고 꼽았다. 그는 “드라이스 남작이 1820년에 제작한 볼렌 쉬레거는 독일 국보이기 때문에 소장할 수가 없었는데 운 좋게 프랑스에서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자전거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장품 중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자전거로 영국에서 1870년에 개발된 ‘peyton&peyton’을 꼽았다. 제빙틀의 페달을 이용해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서 주행하는 자전거다.
구회장과 자전거와의 첫 만남은 어렸을 때다. 구 회장은 “어린 시절 미군부대에서 구입한 중고자전거로 동생과 둘이서 울과 대구를 일주한 경험이 자전거와의 강렬한 추억이었다” 회고했다. 목표점을 향해 갈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가도 끝까지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야말로 자전거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고 전한다.
구 회장의 ‘자전거 사랑’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2002년 유럽 알프스산맥의 600여km 구간을 6박 7일간 질주하는 ‘트랜스 알프스 챌린지’를 동양인 최초로 완주했을 정도로 자전거 마니아다.

2009년부터는 대한자전거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구회장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상생활보다 조금 빠른 스피드로 도시와 자연을 즐길 때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해방감과 자유, 그는 그것을 자전거의 달콤한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자전거의 힘이다.
구회장은 끝으로 국내에도 자전거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구회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배려’다”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 차량 운전자 간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를 배려하는 믿음 속에서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시청 앞 그늘막 놓고 서울시 vs 중구 ‘신경전’ 상반기 ‘나눔주차장’ 900면 추가 확보

중구, 시간부 한마디에 그늘막 설치
“구민 요구장소 아니다” 다시 철거
중구청장 “부끄러운 규정 반성”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있지만, 건너편 덕수궁 쪽에는 그늘막이 없다.



서울시는 중구가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그늘막을 철거한 자리에 그늘막을 새로 세웠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중구청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서구청장은 시청 앞에 4개의 그늘막이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 시간부의 요구를 즉각 이행한 것.
중구청은 주민 거주지가 아닌 서울광장에 그늘막 설치를 지시한 시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가 부당한 요구가 아닌 공문을 보낸 정식 절차였다며 관계자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와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달 30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가 늦어지는 데다 위치도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곳이 많다”며 “서울광장 그늘막은 시간부의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만에 설치한 것이다. 시의 눈치를 본 부끄러운 구정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국 중구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4개의 그늘막을 철거해갔다. 그늘막 회수와 관련해 시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이모(34) 씨는 “중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교가 중구에 있는 학생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면서 “중구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나, 생활권이 중구인 사람도 생각해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중구는 지난 30일까지 관내 50곳에 그늘막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늘막 설치 장소가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시청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 등 대로변 위주여서 구민 요구와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구는 예정된 설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 수요를 조사해 그늘막 위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 입장에서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다.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구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그늘막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해 생활권이 중구인 시민들

을 위해 그늘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같은 자리에 ‘1·SE OUL·U’가 새겨진 그늘막 4개를 설치했다. 대학생 이정현(25) 씨는 “그늘막은 많으면 많수록 좋다”면서 “광장을 지나 덕수궁 쪽으로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시청 쪽에는 그늘막이 있고, 건너편에는 없는 게 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가 그늘막 설치 협조 요청을 수용했다가 다시 회수해가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라며 “그늘막 설치 주체는 시가 아닌 각 구청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구청장은 눈치 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다가 수거한 그늘막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중구청 광장에 계속 두겠다고 했다. 구가 광장 내 그늘막 조성·철거에 투입한 비용은 약 1000만원이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0

실적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강북구에 위치한 A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1만면을 돌파했다.
유류 주차공간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수질검사 모습. /서울시

“시원한 바람부는 한강으로 ‘북캉스’ 떠나요”

15일까지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으로 북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서울책공원에서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행사에는 서울·경기·전남지역의 헌책방 20곳이 참여해 고

서, 단행본, 전문도서, 어린이도서 등 10만권의 책을 전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에서는 ▲헌책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헌책 장터’ ▲헌책으로 만든 대형 아치 ‘책의 문’ ▲1940~1980년대 교과서, 책결상 등을 전시하는 ‘추억의 시간여행’ ▲신영복 선생 저서 ‘필사체험’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판매하는 ‘일일 책방’ 등을 즐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 모습. /서울시

서울 주민센터 아리수 음수대 ‘먹는물 적합’

무작위 25곳 선정 수질검사 결과
서울시내 자치구 내 25개 동주민센터를 무작위로 선정,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적합’ 판정이 나왔다.
서울물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의 세곡동 주민센터,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로 무작위로 동주민센터를 선정해 아리수음수대 수질을 검사했다.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0항목

등 총 17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은 물론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및 페놀류, 농약류 등의 건강영향 유기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 수돗물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잔류염소는 모두 0.1~0.3mg/L 이내로 검출돼, 염소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수질 안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산업]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04

[에듀] 경희대, 세계대학평가 국내 첫 10위권 진입 L4



세계 희귀 자전거 다 모여라! 최초의 자전거부터 소방 자전거까지... 200년 역사 한눈에

Q 르포 |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특별 기획전에 가다



1817년에 제작된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자네'의 모습.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페달이 없다.

“평소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특이하게 생긴 옛날 자전거를 보게 돼서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난달 31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만난 홍성관(12)군은 용돈을 모아 자전거를 구입해 타고 다닐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던 홍군은 관련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특별 기획전을 찾았다.

기자가 방문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105대의 자전거들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의 발전과정과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200년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전시한 기획전이다. 전시장 안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로 붐볐다.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자 1817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자전거 '칼 폰 드라이스 드라이자네'가 눈에 띄었다. 현재 독일 국보인 이 자전거는 발명가 드라이스 남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진 드라이자네는 페달이 없어 땅을 박차면서 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최대 속력은 시속 14km다.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니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큰 '하이 휠' 자전거가 눈에 띄었다. 배부영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팀 연구사에 따르면 이 자전거는 일명 '빈 폴 자전거'라고도 불린다. 1878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되며 그 이름을 알렸다. 그는 "앞 바퀴에 페달이 달린 이 자전거는 높이만 2m가 넘는다"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이 뒤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19세기 당시 부유층 자제들이 과사용으로 타고 다녔다"고 전했다.



1925년 제작된 '밀레 소방 자전거' 소방장비가 장착돼 있다



반더러 스프링 타이어 자전거의 모습. 바퀴가 고무가 아닌 스프링으로 제작됐다.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특별기획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시된 '하이 휠' 자전거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관객.

전 세계에서 수집 105대 자전거 전시 동호회 등 마니아층 방문객에 인기 국립과천과학관서 10월 28일까지

관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자전거는 '밀레 소방자전거'였다. 1925년에 제작된 이 자전거는 소방호스 등 불을 끄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장착돼 있으며 좁은 길을 지나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바퀴가 고무가 아닌 스프링으로 제작된 자전거도 있었다. '반더러 스프링 타이어 자전거'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2차대전 시기인 1941년 독일에서 군수물자로 징발된 고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배부영 연구사는 "이 자전거는 바퀴가 스프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온 에린(30)씨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왔는데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전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말했다. 그는 "페달 없는 자전거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보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은 소방용 자전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회는 마니아층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부산에 사는 이상식(46)씨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한 지 올해로 15년째다"며 "휴가를 얻어 부산에서 과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방문했다" 말했다. 그는 "해외에는 자전거 관련 전시회가 많은데 비해 국내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접할 기회가 없어 평소 아쉬웠다"며 "국내 자전거도 외국 자전거처럼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출시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과 송강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27일 개막해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배부영 연구사는 "지금은 자전거 인구 1000만명 시대"라며 "자전거만큼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질수록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